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19년 10월

특별기획 - 지역성장의 열쇠, 국립대학교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
 2019. 10. 23(수)~10. 26(토)
 일산 KINTEX 제2전시장 6~8홀

<p>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p> <p>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p> <p>📍 2전시장 6홀</p>	<p>교육주제관</p> <p>다양한 미래교육의 핵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p> <p>📍 2전시장 8A홀</p>	<p>2019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p> <p>포용과 나눔으로 함께 가는 미래교육</p> <p>📍 2전시장 7홀</p>	<p>2019 대한민국 학교예술교육한마당</p> <p>예술과 삶을 잇는 축제의 장</p> <p>📍 2전시장 8B홀</p>	<p>미래교육을 논 하다</p> <p>교육전문가의 미래교육 토론의 장</p> <p>📍 2전시장 회의실</p>
---	--	--	--	---

Vol. 447. 2019. 10.



지역성장의 열쇠, 국립대학교
제주 애월초등학교
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Story

OCTOBER 2019 Vol. 447

20

24

10



COVER STORY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가 자전거 안장에 올라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 애월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다 함께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고 3박4일간의 제주 일주라는 긴 여정을 위해 오늘도 훈련을 이어나간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지만 포기란 없다. "얘들아, 오늘도 화이팅!"



32



74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ntents

특별기획

- 02 지역성장의 열쇠, 국립대학교
- 04 거점 국립대의 위상과 역할
- 08 고등인재의 중심 '국립대학 육성사업'
-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총괄책임자 워크숍 개최
- 12 대학-지자체-산업체-출연연 연계로 지역상생의 길 연다
- 18 지역혁신, 지역인재 양성 위한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현장이야기

- 20 꿈이 영그는 현장 제주 애월초등학교
- 24 삶과 교육 구수진 인천약산초등학교 교사
- 28 우리교실, 프로젝트 윤종배 서울 중평중학교 수석교사
- 32 아하! 진로체험 이음피움봉제역사관
- 34 창업공방 윤지현 소보로 대표
- 36 명예기자 리포트 살아있는 현장이야기 "우리 마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외

정책이야기

- 42 정책N전망 교육통계로 보는 우리 교육의 세계화
- 46 이슈1 제15차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
- 50 이슈2 제13회 청람교육포럼 사회변화와 교육
- 54 초점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56 대학교육 대학창업펀드, 창업생태계 키운다
- 58 꽃 피는 교육자치 학생-학부모-지역주민 함께한 연세교육가족 축제 외

정보이야기

- 62 교육포커스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 66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68 아이의 다락방 꿈이 없는 영길
- 70 교사상담실 관리자로부터의 부당한 지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72 이야기 인문학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 74 일상의 침표 걸음마다 진한 삶의 향기 묻어나는 강릉·동해
- 78 뉴스 브리핑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실시 외
- 80 행복 게시판

지역성장의 열쇠, 국립대학교

1. 거점 국립대의 위상과 역할
2. 고등인재의 중심 '국립대학 육성사업'
3. 국립대학 육성사업 총괄책임자 워크숍 개최
4. 대학-지자체-산업체-출연연 연계로 지역상생의 길 연다
5. 지역혁신, 지역인재 양성 위한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지자체-지역 산업계-출연연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가 중요한 열쇠다. 그 중심에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교가 있다. 국립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산업계가 협력할 때 지역혁신이 이뤄지고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그리고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립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지자체-산업체-출연연 연계로 지역상생, 지역혁신을 일구고 있는 현장과 더불어 국립대 육성을 위한 대학의 변화와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한다.





거점 국립대의 위상과 역할

‘지역의 거점 국립대가 제 역할을 하여야
지자체가 다시 한 번 도약한다’



특별기획

국립대란 전국의 대학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 등 대학운영관련 정부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대학을 말한다. 그중 거점 국립대학은 국가와 지역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국가의 혁신적인 발전을 수행하는 전초적인 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거점 국립대학교는 73년 전 설립된 국립대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교육기관은 끊임없이 사회의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학업과 과거합격이 주목적인 성취관이나 향교와 기능이 달랐던 조선시대의 서원도 혁신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네스코에 의해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서원은 유학의 성현들을 모시고 향촌질서를 정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지역민을 계도하는 교육기능과 종합학문연구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기능을 담당하는 융합연구소로서의 기능도 있었다. 현재의 거점 국립대학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수도권 쏠림현상, 균형 발전 위한 극복 과제

지난 9월 마침내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0%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의 인재들과 기반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아니 정착되고 있다. ‘인 서울’이라는 말로 수험생들의 모든 시선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쏠리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지방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들 역시 수도권으로 취업을 희망한다.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이나 공부를 위해서도 수도권으로 거주를 옮긴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구비

된 곳이다. 이런 수도권에 대한 비정상적인 쏠림현상은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해 보인다.

국가의 선도적 발전과 인간 삶의 향상은 모든 국가의 목표이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목표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교육부와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를 앞서가는 전략을 깊이 생각하며 혁신적인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략을 수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다. 교육부 역시 LINC+ 사업, BK+ 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국립대학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학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요구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교육기관 역할 넘어 지역 산업 활성화 견인

대학은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과정을 제공해,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역할은 그저 지금까지 인류가 전해온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에는 현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담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는 국가 산업은 물론 미래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역의 산업 발전과도 끈끈하게 연관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현재 산업과 미래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그 방법에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거점 국립대학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교육방법은 교육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교수 개인의 경험과 역량이 바탕이 되어 나타난다. 이제 국립대학, 특히 거점 국립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능과 임무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 국립대학에 이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의 주요 대학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진행하는 연구와 그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 발전을 이끄는 대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앞서가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거점 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인재양성과 원천기술 연구는 다양한 전공에 바탕을 둔 융합연구와 그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혁신교육토양을 갖춘 거점 국립대학의 자원에 달려 있다. 대학은 가장 창의성 있는 연령대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연구방법을 깨우쳐 줄 수 있다. 지역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 기술의 선점이 지역균형발전에 요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인재의 지역 정주 여건의 향상과 이로 인한 거점 국립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먼 미래의 일로만 치부할 것은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경북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교무부처장, 기획처장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신임 직 이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99년 대한수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2004년 과학기술부 세계적선도과학자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기술 분권의 주체로서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 정립은
지역대학들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체의 기술적 고민을 해결하고,
훌륭한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완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아니라 본다. 이런 선순환 구조의 구축과 원천기술연구에 대한 국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소를 거점 국립대학과 공동운영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연구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에 거점 국립대학의 강의 시수 경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을 연구중심대학으로 탈바꿈 시키는 법제화는 필연적으로 주요선진국의 명문대학과 연구 분야에서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소규모 강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소규모 강의는 교수와 학생의 접점을 획기적으로 늘려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현장에 반영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부수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학문후속세대라 불리는 강사들에게 보다 많은 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거점 국립대-출연연-지자체 유기적으로 연결

대학의 연구 결과가 지역 산업과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거점 국립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이 지역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고 지역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교육기능만 강조된 거점 국립대학이 지자체와 국가의 산업발전 정책에 수동적 대응을 해 왔고, 또한 실효성 있는 기초연구와

산업화 연구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거점 국립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와 지자체가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에 이의 개선을 위해 거점 국립대학은 장점이 있는 각 대학의 특성화분야와 매칭이 되는 정부출연연구소를 공동운영하고 지자체와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와 지역의 산업발전과 문화 창달을 주도하는 플랫폼대학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은 지역혁신플랫폼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지만 현실화 되지 못했다. 이는 혁신도시 완성에 연구기술개발을 주도할 거점 국립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및 지자체의 혁신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점 국립대학은 풍부한 인적자원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고, 지자체는 재원은 있지만 기술개발 분야의 인적자원이 없고, 정부출연연구소는 인적자원과 재원은 있지만 지역 산업체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산업체기술의 질적 전환에 적극 개입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3주체 중 어느 하나도 혁신체제구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플랫폼대학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플랫폼대학의 성공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북유럽 국가 가운데 하나인 핀란드의 알토대학은 인구대비 세계 1위의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드레스덴 공대는 주변 10개의 과학기술대학 등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유럽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플랫폼대학으로 위치가 공고하다. 그러

나 우리가 눈여겨 볼 사례는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연구소는 그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연구소는 폐쇄가 아닌 미국 주립대학교 혁신 플랫폼으로 역할을 전환했다. 그 결과 지난 세월 오랫동안 캘리포니아 버클리대가 위탁운영 받아 타 주립대학과의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협력기지 역할을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주립대를 세계적 명문대 반열에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립 연구소는 그 국가의 목적 거대과학 연구수행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의 세세한 연구는 각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와 박사들에 의해 수행되고 그 결과의 시너지로 연구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대학교도 플랫폼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지역 기업체들과 함께 역동적인 정책을 시행중이다. 바로 휴스타로 불리는 대경혁신인재양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42개월 760억 원을 투입하는 혁신대학과 혁신아카데미를 주요 골자로 볼 수 있다. 혁신대학은 로봇과 ICT 분야의 대학 3, 4학년 인재양성 지원프로그램이고 혁신아카데미는 대학졸업생의 지역기업취업 기술 준비프로그램이다. 사업은 '지역의 거점 국립대가 제 역할을 하여야 지자체가 다시 한 번 도약한다'는 철학에 기인한다. 실질적인 보텀 업 방식의 지역혁신이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소식을 들은 정부에서는 우리의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정부 매칭펀드 사업으로 채택한다고 한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지역산업의 신기술 개발과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와 수도권 인재의 지역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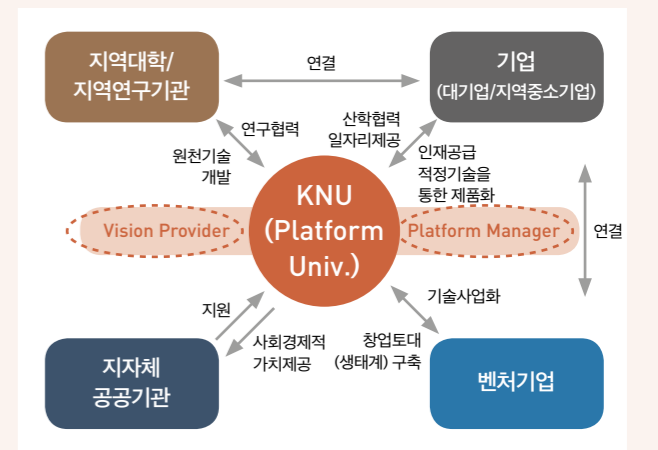
하는 지자체-대학 혁신사업 지원은 지역플랫폼대학 구축에 핵심적인 재원이 될 것이다.

연구기술 분권의 주체로서의 거점 국립대학

연구기술 분권의 주체로서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 정립은 지역대학들을 선도하고 지역 산업체의 기술적 고민을 해결하고, 훌륭한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완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가와 지역발전에서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체제를 재정립하여, 과거 서원이 그랬듯이 지역 사회의 교육과 문화, 산업발전에 필요한 요람이자 플랫폼,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된 지역 발전이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화려한 부활을 꿈꿀 수 있다. ㉔

[그림] 지역 거점 대학 기반 혁신 플랫폼 기념 개념



고등인재의 중심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역 교육·연구 혁신의 거점, 지역 상생·국가 균형발전 기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지자체-지역 산업계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가 중요한 열쇠다. 그 중심에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교가 있다. 국립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산업계가 협력할 때 지역혁신이 이뤄지고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그리고 국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은 지역별·기능별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이다. 따라서 국립대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으로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립대학 정책은 운영체제 개선 및 통폐합 등 구조개혁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연구 여건 등을 위한 재정 투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인건비 등 의무지출성 성격의 운영비는 큰 폭의 변동 없이 수년째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오히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국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평가를 기반으로 차등 지원한 결과 '11년에는 45%(2,600억 원)였던 것이 '17년에는 30%(3,300억 원)로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감소했다.

이러한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 지원방식은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13년에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을 추진해 왔다. '17년부터는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연계하여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고 △국·공립대 간 기능별, 중점 분야별 특화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 네트워크 및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18년에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대학의

[표1] 국립대학 육성사업 방향

	기존(2017)	확대·개편(2018~)
목적	대학 발전모델 구축 및 인사·조직·회계제도 개선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규모	210억 원	(2018)800억 원 → (2019)1,054억 원
지원 대상	일부 국립대(18개교)	전체 국립대(39개교)
지원 방식	경쟁방식 선정평가형	정부-대학 간 상호협약형
성과 관리	사업계획 심사 및 중간평가	대학별 협약체결 매년 운영성과 점검
성과 지표	개별 대학이 선정·관리	개별 대학 특성에 적합한 자율지표 선정·관리
사업 기간	2년('17~'18년)	5년('18~'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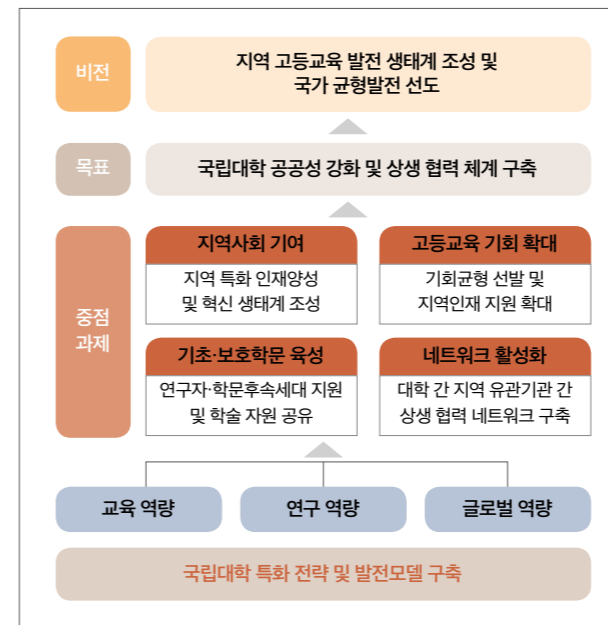
강점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국립대에 지원하던 재정을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7년 210억 원 규모에서 '18년 800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였다.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협력체계 구축

올해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1,504억 원을 증액하여 국립대 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국립대학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학 간 협업 및 지역·대학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학 간의 기능을 조정할 뿐 아니라, 자원의 공동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표2]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중점과제별로 살펴보자.

■ **지역사회 기여**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지역의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대학 내 인

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의 목표·방향·전략을 설정하고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고등교육 기회 확대** 국립대학은 고등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기관이다. ‘고등교육 기회 확대’ 과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의 대입전형의 기회를 확대하며, 나아가 △장애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후학습자 전담과정 등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충한다.

■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고 △기초·보호학문 분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지역학 연구 등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보호학문 육성과 더불어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공동 교육혁신센터, 공동교육과정, 실험실습기자재 공유 등 대학 간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간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캠퍼스 균형발전, 글로벌 역량 강화, 교대 교육과정 개편 등 국립대학 스스로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학교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라며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마다 다양한 상황과 혁신 방향에 부합되는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2

국립대학 육성사업 총괄책임자 워크숍 개최 전국 39개 국립대 공공성·경쟁력 강화 나선다

9월 26~27일 제주서 열려

39개 국립대 육성사업 관계자 등 70명 참여
우수성과사례 공유 및 사업발전 의견 교환

지난 9월 26~27일 개최된 국립대학 육성사업 총괄책임자 워크숍에는 39개 국립대학 육성사업 회원교의 사업 책임자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여했다.



전국 39개 국립대학들이 상생 협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총괄책임자 워크숍이 지난 9월 26~27일 제주에서 개최된 것.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와 충남대학교가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는 39개 국립대학 육성사업 회원교의 사업 책임자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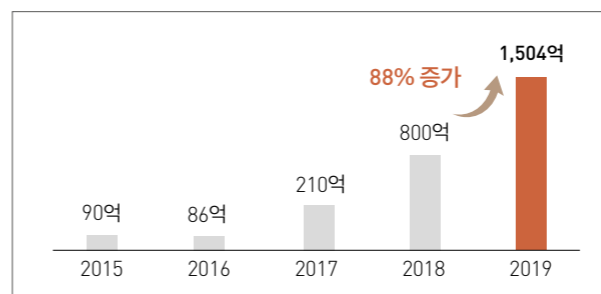
김규용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39개 국립대의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책무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인재에 고등교육 기회제공, 국가 전략분야 기술 연구 등 사립대와 차별화되는 국립대의 고유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학 간, 지역 유관기관 간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년 50억→'19년 1,504억·재정지원 꾸준히 늘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 확대된 것으로,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했다. 재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50억 원에서 2019년 1,504억 원으로 정부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유희진 서기관은 “재정지원사업에서는 먼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협의된 틀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예산 집행과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지자체협력기반혁신사업 등 여타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림] 국립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현황



지역사회 기여·특화전략 등 영역별 우수사례 발표

이번 국립대학 육성사업 워크숍에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우수성과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 제주대 △고등교육 기회확대 부분에 안동대, 목포대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학문분야 육성 부분에 경상대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부분에 서울교대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에 충북대, 충남대가 발표했다.

‘지역사회 기여’ 영역에서 우수사례로 꼽힌 제주대는 제주 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 아카데미를 운영해 대학생들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취약계층 돌봄, 조손가정 멘토링, 마을행사지원 등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고등교육 기회확대’ 영역에서 안동대는 지역인재와 취약계층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정서, 학습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목포대는 소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공계열 실습 실습 체험활동을 펼쳐 교육 양극화를 해소함과 동시에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인재에 고등교육 기회제공, 국가 전략분야 기술 연구 등 사립대와 차별화되는 국립대의 고유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상대는 지역학으로서의 경남학 정립을 위해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인문대학을 운영해 인문학 활성화에 나서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학문분야 육성’ 영역 우수사례로 꼽혔다. 서울교대는 창의융합 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업활동을 지원해 ‘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에서 충남대는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기반 구축과 지역대학 연계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충북대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구축을 우수성과로 발표했다.

지역 균형발전 등 국립대 역할 강조해 적극적 홍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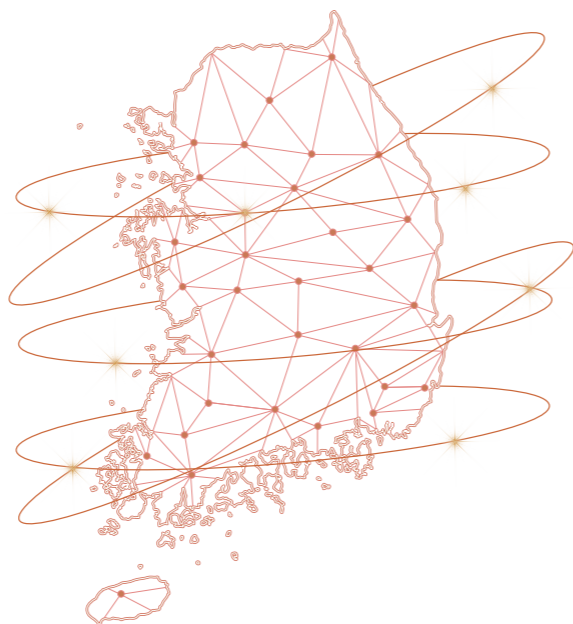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회원교 간 의견을 나눴다.

김규용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장은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과 공공교육 실현이라는 국립대학의 역할을 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융복합 인재 양성,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혁신역량 결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획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전국 39개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 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를 발족한 이후 올해 1월 제1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 오는 12월 제2회 성과 포럼을 진행, 대학별 우수사례 확산과 상호 발전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②




대학-지자체-산업체-출연연 연계로 지역상생의 길 연다



국립대의 주요 역할로 꼽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핵심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립대는 지역인재를 양성해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각 지역의 공공기관과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국립대와 지자체, 산업계, 출연연이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대학-지자체-산업체-출연연이 연계한 산학협력 우수사례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이루고 있는 현장을 조명해본다.

**충남대,
지역 대학-지자체 연계 글로벌
인재 양성**



- 주요 내용
 - 지역 대학 및 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창업 생태계 조성
- 세부 사항
 - 대전권 대학 및 대전광역시와 함께 유학생 박람회 개최
 -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해 유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구축 및 취업 연계
 - 대전 팁스타운 2020년 완공 예정

충남대는 대학-대학, 대학-지역연계, 대학-공공기관 등 각 영역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대학 간 네트워크 영역을 살펴보면, 지역 대학 및 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특히 지방 대학들의 입학정원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제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전대·목원대·한남대 등 대전권 대학 및 대전광역시와 함께 유학생 박람회를 개최, 2,000여 명의 현지 학생 방문을 이끌었다. 또, 지역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유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취업 연계에도 나섰다.

캠퍼스 내 대전 팁스타운 유치...창업 생태계 조성

충남대는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 대전 팁스타운(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이 충남대 캠퍼스 내부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창업지원시설 공유 및 창업협력 연계 △창업마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협조 등의 지원에 나섰다. 2020년도에 완공 예정인 팁스타운을 통



부산대, 지역상권 회복·관광 활성화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주요 내용
 - 지역혁신협력팀 신설해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 추진
 - 부산시 공동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 주최
- 세부 사항
 - 부산 금정구 작은도서관 '금정 북파크' 운영 협력
 - 부산시·울산시·경남도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궁극적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노릴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해양경찰청, 육군교육사령부와 MOU를 체결해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관·학 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대는 지난 1월 대학 본부 내 지역협력 전담 조직인 지역혁신협력팀을 신설해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학생과 함께하는 관광수용태세 정비, 무슬림 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 부산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중학생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학과 체험 등의 콘텐츠도 호응을 얻었다. 그중 '지역대표 민·관·학이 함께 만든 문화복합공간 작은도서관' 사업은 교육부 주관 '2019년 교육기관 정부혁신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7월 개관한 부산 금정구의 작은도서관 '금정 북파크(BOOK PARK)'는 부산대와 금정구, (주)파크랜드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지역 향토기업인 파크랜드가 공간 제공과 내부 인테리어 및 비품 구입을, 금정구는 도서 구입·관리, 운영인력 배치,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맡았다. 북카페형 복합문화공간인 금정 북파크는 기업이 자체공간에 시설비를 투자해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무상 제공한 최초 사례로 꼽힌다.

민·관·학이 함께 만든 작은도서관 '금정 북파크'

부산대는 금정구와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민의 교육·문화 수준 향상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금정 북파크에서 시민 인문아카데미 운영을 맡아 도서관 개관 이후 7-8월 두 달간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인문강좌를 진행했다. 부산대 교수진이 투입된 인문강좌에는 매회 평균 50명 이상의 시민들이 수강했고, 매 강의 직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대는 오는 11월부터 두 달간 제2기 시민인문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5-6일에는 '2019 부산대학교와 함께하는 금정 북 페스티벌'을 개최,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화 인형극과 1박2일 독서캠프, 송성수 부산대 교양교육원장이 진행하는 북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부산대-부산시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 공동 주최

부산대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을 개설,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바탕을 둔 대학-지역 상생발전 전략을 세웠다. 지난 9월 18일 제1기 개강식을 가진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은 부산시·울산시·경남도의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부산·경남 지역의 지자체 및 산하기관 임직원, 대학원생, NGO 회원 등 약 50명이 등록했다.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에서는 총 12주(24시간)간 빈곤퇴치, 건강과 웰빙, 깨끗한 에너지, 기후변화 및 육상생태계 보존 등 17개 목표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수료 후 부산대 총장 명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과정 이수 후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한밭대,

'한집안 프로젝트'로 학생-지역기업 연계



• 주요 내용

- '한집안(한밭인, 지역을 반짝이다) 프로젝트'로 학생과 지역기업 연계

• 세부 사항

- 지역기업과 팀별 매칭을 통한 멘토링 진행 및 현장 방문
- 지역 CEO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소통 활성화



○ 한밭대는 '한집안(한밭인, 지역을 반짝이다) 프로젝트'로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한집안 프로젝트는 학생들과 지역기업을 연계해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인지도 향상 기회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기업에 인재 유치를 유도하는 프로젝트다. 우수 인재를 대학이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한집안 프로젝트는 팀 단위 프로젝트로 4인 1팀, 총 5팀이 구성돼 팀별로 멘토링을 받고 싶은 2개 기업을 선정 후 매칭한다. 멘토링 업체를 현장 방문해 체험하고, 팀별 멘토링 내용을 발표 후 우수활동 팀을 선발해 시상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진행된 한집안 프로젝트에는 반도체 전문기업인 인텍플러스,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기업인 비즈 등 10개의 지역기업이 참가했다.

지역기업 인지도 20%→83%로 상승 등 긍정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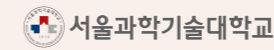
한집안 프로젝트는 지역 CEO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기업가들과 소통하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등 젊은 직장인과 기업가들이 일하는 모습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또한 실무자, 관리자, 대표자, 원로 등 4단계 멘토링을 통해 신입의 역할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의 일련의 과정과 목적의식을 학습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후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지역 애정도가 증가하며 지역에 대한 관심도 상승했고, 직장가치관에도 변화가 있었다. 직장선택에 있어 우선순위가 연봉과 복지였던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계발과 발전가능성을

우선 순위로 뽑으며 직업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지역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기존 20%에서 83%로 상승하는 효과도 있었다.

서울과학기술대,

5년제 실무형 'BEAR' 프로그램 운영



• 주요 내용

- 5년제 실무형 'BEAR' 프로그램 운영
- 학내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세부 사항

- 학부생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 참여, 장기현장실습 파견 등 산업현장 밀착형 실무 역량 강화
- 서울테크노파크, 테크노큐브동, 창조융합연구동 등 탄탄한 산학협력 인프라

○ 현재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인재 능력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수준 차이로 대학과 산업현장 간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서울과학기술대는 실무 중심의 BEAR(Best Education for Applied Research)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삼았다. 이는 실무형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실용학문 중심의 5년제 학·석사 연계 교육모델을 기초로 한다. BEAR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인제교육을 질적으로 향상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융복합 실무능력을 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또한, 학교는 학부생 정원을 석사과정으로 이동시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BEAR 프로그램은 2017년 4개 학과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을 마친 후 지난해 11개 학과로 확대, 올해 10개 학과로 재구조화했다. 참여 학생들은 학부생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LG화학 등으로의 장기현장실습 파견을 통해 산업현장 밀착형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전공 분야별 관련 기업체 탐방과 산업체 전문가 특강을 통해 관심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서울테크노파크·테크노큐브동 등 산학협력 인프라 갖춰

서울과학기술대 캠퍼스 내에 위치한 서울테크노파크는 기술기반의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학교가 88억 원, 서울시가 600억 원, 정부가 연구개발과 장비구축을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 총 102개사 기업이 입주해 923명을 고용하고 1,5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학내 산학협력연구 중심기지인 테크노큐브동에는 최근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개발을 위한 대학중점연구소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국방과학기술연구센터가 개소하며 산학연 및 군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여기에 창의융합클러스터인 창조융합연구동이 내년 완공되면 서울테크노파크, 테크노큐브동과 함께 산학협력 실현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지난 5월에는 홍릉지역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을 위해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립문화재단 등 홍릉지역 17개 기관이





모여 관계기관 간 협력을 논의하는 제13회 홍릉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서울과학기술대는 학내 프로그램과 배후공간 및 인프라 활용을 내세우며 홍릉강소특구 구성에 힘쓰고 있다.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은 홍릉포럼에서 “서울과학기술대가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홍릉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적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부경대,
‘드래곤밸리’로
산학연협력단지 구축**



· 주요 내용

- 산학연협력단지 ‘드래곤밸리’ 구축
- 지자체와 협력 통해 지역 현안 해결

· 세부 사항

- 용당캠퍼스 전체를 기업에 개방한 창업 및 산학연 혁신 플랫폼
- 교육부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선정으로 동북아 최대 규모 특화 산학연 협력단지 구축 예정
- ‘전통시장·골목식당 PKNU 청년지킴이’ 프로그램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



○ 부경대는 지난 2015년 부산시의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URP)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드래곤밸리’를 조성했다. 드래곤밸리는 캠퍼스 전체를 기업에 개방한 창업 및 산학연 혁신 플랫폼으로 부경대 용당캠퍼스 33만㎡ 부지에 지어졌다. 현재 341개 기업 1,700여 명의 직원이 드래곤밸리에 상주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남권 중소기업 특별기술지원단’ 운영에 드래곤밸리의 전문 인력과 연구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부경대는 최근 한양대 에리카(ERICA)와 함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드래곤밸리를 한층 고도화하게 됐다. 오는 2024년까지 111억여 원이 투입돼 동북아 최대 규모의 특화 산학연협력단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유망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통한 핵심 기술개발을 비롯해 전문장비구축, 기업 간 네트워킹, 금융 및 마케팅, 디자인 등 총체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배출한다는 전략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나선 ‘PKNU 청년지킴이’

부경대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골목식당 PKNU 청년지킴이’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부산 남구청과 MOU를 맺고 지역 전통시장인 남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경영지원에 나섰다.

경영 전공 학생들은 업체의 생산, 품질,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점포별로 간판, 가판대, 매장 구조물 등 시설물 정비와 제작을 지원하고 벽면 도색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는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에게는 소상공인 경영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논의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공립대학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국·공립대 총장들은 국·공립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26일 서울 워커힌 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는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의 협의체로서, 이날 행사에는 총장 36명을 비롯해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교연비 집행에 대한 개선사항 논의를 비롯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방식 개선,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정년 제한 개선 등 국·공립대학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공립대학 연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공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충남대학교 오덕성 총장은 ‘대학-지자체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오 총장은 “플랫폼 대학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은 ‘국·공립대학교 연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했다. 김 총장은 △지역대학 중심의 혁신형 융복합 인재 양성체계 구축 △지역산업 및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 창출 △지역 사회와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지역혁신의 플랫폼을 제안했다.

부경대학교 김영섭 총장은 부경대 내에 조성된 산학연협력단지 드래곤밸리를 소개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총장은 KIST,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 총 17개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발굴·공유하는 학술·연구포럼 ‘홍릉포럼’을 통한 지역혁신 구축사례를 발표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



지역혁신, 지역인재 양성 위한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상생의 네트워크 구축, 고등교육 책무성 높여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 미래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
협력 강화로 학습 선택권 및 교수·학습 역량 기대**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전체 국립대학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역을 거점으로 일부 국립대학에서 공동 교육과정 및 국립대학혁신센터 등 연합 체제 구축에 나

섰다. 이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대학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국립대학 간의 비효율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학 간 기능을 조정하고 자원을 공동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권, 공동 교육혁신센터 구축

먼저 강원권에서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지난 8월 17일 강원대에서 강원권 공동 교육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대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지역 및 대학협업 네트워크' 분야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강원대 교육혁신원과 강릉원주대 교육역량개발원이 주축이 돼 강원권 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유를 목적으로 협업하게 된다.

양교는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대학의 개별적 노력이 아닌 강원권 고등교육기관의 공동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표적 공동 추진 과제는 △혁신적 교수·학습법 공동연구 △Edutech 공동개발 △교육성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공동연구 △교육혁신 국제공동 연구 및 공유·확산 등 4개 분야로 공동연구를 통해 강원권 상황에 맞는 교육혁신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대 김현영 총장은 “강원지역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 및 국립대 교육혁신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대학이

더욱 공고히 협력해 강원지역의 지속 가능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릉원주대 반선섭 총장은 “그 동안 강릉원주대와 강원대는 계절학기 학점교류를 비롯해 도서관 상호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인문교양벨트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강원권 대학들이 대학 중앙 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4개 국립대 공동 교육혁신센터 설립

경남권역의 국립대학 4곳도 공동 교육혁신센터를 구축, 국립대학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대 기초교육원, 경상대 기초교육원, 경남과학기술대 교육혁신원, 진주교대 기획연구처 등 경남지역 4개 국립대학은 지난 9월 19일 ‘공동 교육혁신센터 구축 및 공동 교수·학습 역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대학은 협약서에서 △공동 교육혁신센터의 역할 정립 및 설립 △교육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역량기반 교육과정 연구, 설계 및 성과 분석 체계 구축 △지역 사회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 수요조사 개발 및 실시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호 창원대 기초교육원 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 지역 국립대학 간 상호교류 및 협력강화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다양화, 교수·학습 역량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서남권 대학 실시간 공동강의 시작

서남권역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는 국립대학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수업 제공 및 대학 간 강점 분야의 강의를 교류하기로 했다.

이들 국립대는 지난 3월부터 상생 협력에 대한 뜻을 함께

하고 △공동강의(화상수업)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동강의 전담인력 및 강의 교원 확보 △교류과목 수 및 시작 시기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해오고 있다. 주관교는 전북대학교가 맡았다. 전북대는 “올해에는 공동강의를 위한 참여대학 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0년 1학기에 공동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국립대학으로서 교육방식을 확장함으로써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 국립대 공동 교육혁신센터 구축

충청권역에 위치한 8개 국립대(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는 지난 3월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 지난 8월경 충청권 국립대 간 공동 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는데 최종 합의하였다.

충북대는 “충청권역에 국립대학 간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우수 교육사례들을 공유하고 확대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을 선도할 상생 협력의 생태계 구축해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공동 교육혁신센터 구축을 위해 충청권역 국립대학들은 지난 8월경 센터 내에 교육혁신지원팀, 공유확산지원팀, 성과분석팀 구성을 끝내고 대학별로 기획처장을 주축으로 운영위원회 및 실무추진위 구성을 마쳤다. 충북대 관계자는 “대학 간의 물리적 협력을 넘어 충청권 국립대학의 교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권역, 경남권역, 충청권역, 서남권역별로 국립대학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히, 지역 상생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②



제주 애월초등학교

학년별 도전과제 함께하며 성장하는 아이들

제주 애월초등학교(교장 강혜순)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교육 모델인 '다흔디배움학교'로 출발해 올해 재지정을 받았다. 그동안 '두근거리는 배움을 함께 찾아가는 따뜻한 학교'를 지향하며 배려와 존중,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을 체계화 안정화함으로써 교육 중심의 학교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교육과정 안에서 도전과제를 실천하는 아이들을 따라가 보자!

도전 위해 매일 아침 운동장을 달린다

아침 8시. 등교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책가방을 둘러멘 아이들이 하나둘 운동장으로 모여든다. 3~4명쯤 모였을까? 가방을 한쪽에 모아둔 채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가볍게 뛰며 몸을 푸는 아이들은 제주 애월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다. 한라산 정상 등반을 며칠 앞두고 여느 때와 다

름없이 오늘도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 “우리의 목표는 다함께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까지 오르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여유있게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어떤 아이는 친구를 도와서 한라산을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각자 세운 목표에 맞춰 2학기 시작과 함께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며 근력을 키우고 있어요.”



1 애월초등학교 전경

23 애월초 4학년들의 한라산 정상 등반을 위한 기초체력 훈련(사진 3)과 한라산 정상에 오른 모습(사진2). 몸은 고되지만 도전에서 얻은 성취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다.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찬경 교사의 설명이다. 백록담의 해발고도는 1,950m. 성인에게도 결코 녹록지 않은 높이다. 관음사탐방로를 거치면 정상까지 오르는데 꼬박 5시간이 걸린다. 김찬경 교사와 24명의 아이들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선배들이 해왔고, 선배의 선배도 해왔던 도전과제기에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그러기 위해 매일 훈련일지를 쓰며 기초체력을 다져왔으며 거리를 조금씩 늘려 걷기 훈련을 해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한라산의 1,700m 고지에 있는 윗세오름에 함께 오르며 ‘우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터이다.

“윗세오름에 올라가는 데 3~4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가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름에 올라 내려다봤더니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고 도시락도 진짜 맛있었고요.”(세계)

“한라산에 식물이랑 곤충을 만나게 되어 좋았어요. 버섯은 땅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한라산 둘에서도 버섯이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민재)

한라산 정상 등반 프로젝트는 한 달간 진행된다. 김찬경 교사는 “제주도의 신화, 한라산의 동식물, 오름 오르기, 한라산 정상 탐사, 탐사를 마친 후에는 총정리해서 내년도에 한라산을 오를 후배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발표회를 갖는다.”라며 “도전과제는 아이들이 함께 성취한 것이기에 자부심으로 나타나며 학교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한다.

애월초의 도전과제는 학년별로 진행 중인데, 1학년은 줄넘기, 2학년은 민속놀이 10가지 익히기, 3학년은 25m 수영하기, 5학년은 제주도 자전거로 일주하기, 6학년은 나눔과

봉사로 10km 마라톤에 도전 중이다. 아이들은 매일 묵묵히 도전을 이어간다. 이 모든 도전활동은 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지며 나오자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배움이 함께 찾아가는 따뜻한 학교 ‘애월초’

애월초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교육 모델인 '다흔디배움학교'로 출발해 올해 재지정을 받았다. 그동안 '두근거리는 배움을 함께 찾아가는 따뜻한 학교'를 지향하며 배려와 존중,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배움 중심 수업을 만들어가는 수업, 평가의 지속적인 혁신도 꾀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을 체계화 안정화함으로써 교육 중심의 학교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애월초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학교문화의 중심에는 다모임이 있다. 강혜순 교장은 “학교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모임이 중심에 있다.”라며 “그중에서도 우리



4



5



6



7

학교에는 ‘다모임 가족’을 통해 협력적 생활을 해오고 있다.”라고 소개한다.

애월초의 다모임 가족은 1~6학년생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 6학년이 만형이 되어 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다모임 가족 행사를 이끌기도 한다. 이는 선후배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배려와 책임의 학생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다흔디 야영’은 다모임 가족들이 한 지붕(텐트) 아래에서 형제애를 느끼며 가족의 참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모임 가족 야영은 부모의 도움없이 학생들이 메뉴를 정해 함께 밥을 해 먹고 어린 동생들과 미션을 수행하며 온전한 형제애를 경험한다.

돈독함으로 뭉친 다모임 가족이 최근 다모임 회의를 통해서 학교생활인권 규정을 완성했다.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이런 민주적인 과정으로 교직원인권 규정, 학부모 약속을 정했고 이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애월 예술제에서 선포할 예정이다.

‘나’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협력적 생활교육

또한 협력적 생활교육은 교직원에게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학급에서 이뤄지는 문제나 어려움을 교사나 학생의 개인적 문제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강혜순 교장은 “일상적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교사회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라며 “매월 교육과정 평가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생활문제해결위원회를 열어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애월초 교사들 사이에서 수업에 대한 고민은 치열하다. 며칠 전 교육과정 평가회가 열렸다. 한 선생님의 평소 잘 안 되는 수업, 고민하는 수업을 영상으로 찍고 모든 선생님이 모여 수업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수업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혼자서 고민해왔을 선생님을 지지해 주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선생님도 학생과의 갈등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때로는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데, ‘학생과의 갈등’ 부분을 집요

- 4 1학년 도전과제 ‘줄넘기’
- 5 마라톤 10km 구간을 달리기 위해 훈련하는 6학년
- 67 제주도 일대를 자전거로 일주하는 5학년 아이들. 극한의 상황에서 친구는 큰 힘이 된다.

하게 파고든다. 그리고 멘토 교사와 함께 역할극으로 수업을 재연하고 그 과정에서 수업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올해 애월초에서 5년째 근무 중인 한경희 교무부장은 “이러한 학교문화가 쌓이고 교육활동이 이뤄지면서 배려가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만들어졌다.”라며 “선생님들도 과거 업무에 치여서 수업을 했다면, 지금은 수업에 대한 고민과 혁신교육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런 고민을 학교 교육과정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한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방법 ‘마을교육’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마을 속에서 배우는 ‘마을교육’, ‘교육교육공동체’는 올해 ‘다흔디배움학교’ 2기를 맞은 애월초의 목표이기도 하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마을교육도 해오고 있다.

그밖에도 애월의 역사유적 답사, 마을의 혼자 사는 어른들을 돕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개교기념일에는 학생들이 쌀을 모아 그동안 학교에 도움을 준 마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 나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애월초는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오히려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혁신교육을 해오는 동안 업무혁신과 문화혁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합니다. 수업·평가혁신은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기에 평생 동안 일궈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2기를 맞아서 학부모를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가 좀 더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혜순 교장의 설명이다. 이른 아침,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하는 궁금증을 품고 학교로 뛰어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에서 애월초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

구수진 인천약산초등학교 교사

히어로 아이들(hero54)과 함께 만드는 세상

인천약산초등학교 구수진 교사의 수업현장에서 '교과서는 바로 세상'이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토론을 하면서 세상을 향한 따스한 발걸음도 내딛는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와 살아가는가?' 등 6가지 대주제와 함께 질문을 던지고 배우면서 십 수년째 주제중심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과 'Non Sibi' 교육철학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구수진 교사를 만났다.

“역사 시간 속으로! 액션~ 큐!”

친구들의 '큐' 사인과 함께, 각 팀의 상황극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려졌다. 고구려·신라·백제·당나라 왕, 화랑 후보자 등 친구들의 서툰 몸짓, 설익은 대사에선 '까르르, 크크' 웃음보도 터져 나왔다. 인천약산초등학교 5학년 4반 5교시 수업. 구수진 교사의 '주제중심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중 '5주제: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 극으로 다시 보는 역사토론' 수업이 한창이다. 각 팀별 상황극이 끝나고, 토론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이내 웃음기를 거두고, 사뭇 진지한 토론자의 자세로 돌아왔다.

“당나라 왕에게 묻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꼭 신라와 연합하게 되었나요?”

“고구려 병사에게 묻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화랑 후보자님은 왜 화랑이 되려고 하나요?”

극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건네면서 학생들은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6교시까지 연계된 수업이 끝나고 기자와 잠깐 마주앉은 오윤지 학생은 “극 중 인물의 역할에 몰입하다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이런 수업방식을 좋아한다.”라고 귀띔했다. 윤지 학생은 또 “오늘처럼 토론 수업에서는 질문을 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책임이나 자료검색 등 수업준비도 더 열심히 하게 돼 내가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번 수업을 마친 소감을 들려줬다.



1 극으로 보는 역사토론 수업의 한 장면
2 십 수년째 주제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 구수진 교사



올해로 교직 29년째를 맞는 구수진 교사는 벌써 십 수년째 이 '주제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에서 이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사례의 공로로 초등부문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Non Sibi: 나만을 위하지 않는다'

“교실수업 현장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가르치려고 노력하면서도 자꾸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요즘의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학창시절의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꿨는지도 돌아보게 됐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나 지금이나 교실 속 아이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구 교사는 그러한 익숙한 것들로부터 한번쯤 탈피해 보기로 했다. 처음엔 낯설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직접 디자인해 적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즈음 구상하게 된 것이 바로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이었다. 처음엔 교과와 한 부분을 세상의 이슈와 연결해 학습 주제로 삼았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등등. 학생들로 하여금 제시된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정보와 해결방법까지 스스로 찾아내어 접근하게 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한 교과에서 전 교과를 넘나들며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2014년에는 학습연구년제를 맞으면서 구 교사의 이 프로젝트 수업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전 관심 연구 분야였던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도 더욱 깊숙이 들여다볼 기회도 생겼다.

“2014년 방학을 맞으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소금과 빛 국제학교’에서 교육봉사를 했어요. 바로 이 학교에서 만난 교육철학이 ‘Non Sibi’였죠. ‘나만을 위하지 않는’이라는 뜻으로, 이전에 책에서 만난 후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용어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저 ‘Non Sibi 한 사람이 되자’를 학급비전으로 삼았었지만, 캄보디아에서 교육철학으로 다시 만나면서 저로서는 새롭게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죠.”

세상을 향한 긍휼함을 품는 아이들

2015년부터 구 교사의 이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은 ‘Non Sibi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명명됐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가? 우리는 누구와 살아가는가?(이상 1학기),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가?’ 등 이 6가지 대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이 교육과정에선 ‘세상이 바로 교과서’가 된다. 특히, 첫 번째 대주제인 ‘나(우리)는 누구인가?’를 배우는 연초 2주 동안에는 다른 진도 없이 ‘나’를 되돌아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는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

구 교사는 2년 전 운영했던 4학년 3반 아이들의 Non Sibi 프로젝트 수업 중 한 장면이 아직도 또렷하다. 인권 관련 주제였던 ‘우리는 누구와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 과정. 장애인에 대한 어른들의 편향된 인식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날 수업에서 아이들의 질문은 바로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채 간절히 눈물로 애원하던, 한 특수학교 건립과 관련된 뉴스기사’로부터 촉발됐다.

“그 토론에서 아이들이 내린 결론은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어른들로서는 장애인인 친구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친구의 입장을 생각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아야겠다 등등, 아이들로부터 끊임없는 이야기와 어른들을 향한 질책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시 아이들은 장애인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공정한 등굣길’ 캠페인도 솔선하여 전개했다. 또 청와대의 대통령께도 ‘공정한 등굣길’이 되게 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후, ‘hero43 학생들에게’라

는 청와대로부터 온 회신을 받아든 4학년 3반 아이들은 세상을 품에 안은 듯 기뻐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긍휼함을 품는다면 세상은 결코 악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든 긍휼함을 경험하도록 한다면, 그 마음이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자는 소망을 품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제가 꿈꾸는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그날’을 함께 소망하게 되길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인터뷰 내내 구 교사가 몇 번이고 강조한 어휘가 바로 이 ‘긍휼함’과 ‘안타까움’이었다. 이는 Non Sibi 교육과정의 철학을 대변하는 개념어들이기도 하다. 구 교사가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강조하던 또 다른 말은 바로 ‘히어로(hero)’였다. Non Sibi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좀 더 상징화하여 표현한 말이다. 구 교사는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순간순간 ‘히어로처럼’ 성장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이 수업방식을 결코 멈출 수가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학급일기, ‘선생님의 눈 속에’

구수진 교사는 2007년부터 매년 아이들과 함께 댓글로 소통하는 학급일기를 써오고 있다. 한 학년을 마치면 이 온라인일기는 종이책으로 엮여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 소장하게 된다. 학급일기 ‘선생님의 눈 속에’는 선생님과 제자들과의 12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역사서인 셈이다.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애독자들도 점점 늘고 있단다. 도입 첫 해, 유독 힘들었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공기마저 무겁다’라는 제목의 푸념 섞인 일기를 쓴 날. 선생님을 위로하는 반 아이들의 사랑스런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하더라. 구 교사는 “다음날, 교실에 들어서면서는 어제의 그 무겁던 마음은 씻은 듯 사라지고 여느 날보다 더 활기차고, 힘차게 아이들과 아침인사를 나눌 수 있었



4

3 구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순간순간 히어로처럼 성장하고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4 2007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써온 ‘온라인’ 일기를 엮은 학급일기. 아이들과 구 교사의 12년간의 삶이 담겨있다.

다.”라면서 웃었다.

“처음엔 자신들만 일기 쓰는 것에 억울해 하는 아이들을 위해 ‘그러면 선생님도 좋게’ 하면서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일기를 쓰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저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쌓인 마음들이 모여 두툽한 책으로 엮일 수 있었던 거죠.”

약산초교로 오기 전 졸업생 제자들과 ‘소울앙상블’ 오케스트라를 창단, 지휘를 맡으면서 인천지역 병원과 복지원 등에서 재능기부활동에도 열심히 참가해 온 구수진 교사. 요즘도 주말이면 캄보디아에서 유학 온 소금과 빛 국제학교 학생들을 돕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는 중이다.

“우리나라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듯이,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해외 교육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그곳의 아이들과 프로젝트 토론수업도 하고, 뮤지컬 공연도 하면서요.”

늘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구수진 교사의 Non Sibi 교육철학은 현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계로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②

3





1

윤종배 서울 중평중학교 수석교사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사수업의 길을 찾다

윤종배 수석교사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사수업’을 지향한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면 학생들에게 ‘뭘했더라?’ 질문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일깨워주고, 짝꿍에게 교과서를 읽어주고, 가르쳐 주는 활동을 거치면서 학습효율은 더욱 배가된다. 서울 중평중 3학년 8반 아이들의 역사수업 현장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12 “누구에게나 완벽한 수업은 불가능하다.”라는 윤종배 수석교사는 매년 10여 차례 공개수업을 하며 수업을 공유해 오고 있다.



2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일본인이 손쉽게 토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어.”

이제욱 학생이 짝꿍인 박소정 학생에게 교과서 49쪽의 내용을 설명해준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인 지주, 소작인, 회사령(1910).’ 제욱 학생은 이날 수업의 핵심 주제어들에 일일이 동그라미를 치며 소정 학생에게 자상한 설명을 이어간다. 이번에는 소정 학생 차례. 50쪽에 기술된 ‘105인 사건’ 등의 내용을 또박또박 읽으며, 옆자리의 친구에게 곧 공부하게 될 핵심어들을 가르쳐준다.

9월 25일 서울 중평중학교 3학년 8반 3교시, 윤종배 수석교사의 한국사 수업이 한창이다. 이날 배울 단원은 ‘일제의 무단통치와 토지조사 사업.’ 윤 수석교사는 먼저, 지난 시간에 ‘뭘했더라?’ 질문하는 것으로 수업의 시작을 알렸다.

친구끼리 가르쳐 주고, 개념잡기 본격 출발!

“첫 번째 질문, 항일 의병운동 중에서 해산된 군인들이 적극 참여한 것은?”

“정미의병.”

학생들은 서둘러 지난 시간에 배운 정답을 활동지에 채워갔다. 다함께, 오늘 공부할 내용의 낭독에 이어 학생들이 직접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윤 수석교사는 이제욱·박소정 학생의 앞의 예시처럼, 이 시간을 ‘친구끼리 가르치기’ 활동으로 구성했다. 이 ‘친구끼리 가르치기’는

윤 수석교사가 매 차시마다 운영하는 활동 중 하나다. 윤 수석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읽고,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의 핵심 주제어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등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개념잡기나 수업 후반부의 모둠활동을 위한 사전준비 역할도 겸하게 된다.”라고 소개했다.

뒤를 잇는 ‘개념잡기’는 활동지의 빈 칸을 채우거나 문장을 완성하면서 이날의 학습내용을 익히는 시간이다. 윤 수석교사는 국권을 강탈한 일제가 식민통치의 최고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한 이야기, 또 1910년대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통해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 억누른 ‘무단통치’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두 번째의 개념잡기에서는 정치, 문화, 탄압 등 일제가 저지른 무단통치의 실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진다.

이날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개념은 ‘토지조사 사업과 산업의 침탈’에 따른 일제의 경제적 수탈. 표면적으로는 근대적 토지소유 확립이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토지약탈이었음을 윤 수석교사는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러일전쟁에 사용될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일제가 조선인 강제동원으로 건설한 철도망에 대해서도 소개가 된다.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1910년대의 독립운동,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105인 사건,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신흥무관학교 등에 대한 소개도 이어진다.

매 차시마다 ‘소통하는 협력수업’을 지향하는 윤 수석교사의 수업은 이 ‘개념잡기’ 활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활동

지의 각 주제 문항마다 핵심어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빈 괄호로 두어 학생들이 직접 채워 넣도록 한다. 학생이 발표할 때에도 윤 수석교사만의 원칙이 따른다. 간단명료한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은 번호 순으로, 의사표현이 요구될 때는 지목하는 대신 발표를 학생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소통하고 협력하며, 질문을 품다

“역사수업의 목적은 미래역량을 가진 민주시민의 양성이기도 해요. 민주주의의 기초인 토의와 토론수업을 통해 경청에 대해 배우게 되죠. 또 선조들의 지혜를 거울삼아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바로 역사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사수업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면 사고가 더 깊어지고, 이야기는 더 충실해집니다.”

학문의 의미는 곧 ‘물음’이라는 말처럼, 수업에서 질문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 수석교사의 이번 수업 또한

강의-발표-질문이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강의하는 가운데 질문이 이뤄지고, 학생들의 말이나 발표는 공식화하여 직접 칠판에 적어 놓는다.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답을 찾아내기도 한다. 윤 수석교사는 “교사의 질문이 아닌, 학생들의 질문은 교사가 수업시간의 진도를 가늠하고 결정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요소”라면서 질문을 품은 역사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도 윤 수석교사로서는 늘 강조하는 대목. 이번 차시에서 소개되는 핵심어인 ‘무단’과 ‘수탈’처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말들은 한 자 한 자, 그 뜻을 풀이를 직접 설명해 주곤 한다.

“역사수업은 역사의 기본적 사실, 인물, 그 시대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길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강의가 간과되어서도 안 돼요. 교사의 강의가 일차적인 바탕이 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와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토의·토론 등 다양한 활동영역으로 점차 진전시켜가야 합니다.”

“좋은 수업은 의미+재미+흥미 충족해야”

다시 3학년 8반의 역사수업 시간. 활동지의 마지막 순서인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의논하면서 생각을 키우는 활동이다. 이날 윤 수석교사가 준비한 질문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어찌할 것인가?’다. 학생들의 선택지로는 ‘철거, 보존, 제3의 대안’ 등 3가지가 각각 제시됐다. 그런데 세 가지 방식 중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윤 수석교사는 다른 반 수업에서는 ‘철거해야 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귀띔했다). ‘보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학생은 “그것을 보고 다시 되새기며, 다시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한다. 바로 옆 친구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장면이므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잠시 후 ‘철거해야 한다’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일제 잔재를 보면 기분이 나빠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개수업은 중간고사를 한 주 앞둔 시점에 진행이 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생각을 키우는 토의토론 등 모둠 활동은 이전 차시 단원들에서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윤 수석교사는 아쉬움을 전했다. 시간이 더 확보되었다면, 마지막 활동과제에서는 ‘내 생각쓰기, 짝 생각쓰기, 우리 모둠 생각쓰기, 다른 모둠 발표적기, 마지막 내 생각쓰기’ 등 학생들이 다양한 갈래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올해로 교직 30년차를 맞이하는 윤 수석교사는 저서 <역사수업의 길을 묻다>에서 부임 초기에 종종 운영하던 극화 학습을 학습효율도 높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던 수업으로 꼽고 있다. ‘통일신라 모의재판’에서처럼 학생들이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극화하여 형식의 재미를 느끼게 한 수업방식이였다. 현재로서는 수업시수 때문에 운용하기 어려



35 중평중 3학년 학생들과 윤 수석교사
4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완성한 세계사 신문
6 윤 수석교사는 지금까지 <역사수업의 길을 묻다>(2018), <나의 역사 수업>(2008), <5교시 국사시간>(2005), <놀면서 배우는 신나는 국사시간>(2003) 등 역사수업과 관련한 여러 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운 환경이지만, 일부 제한적인 극화학습에 대한 꿈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기도 하단다.

“좋은 수업은 재미와 의미, 그리고 흥미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미만 강조하는 아기자기한 수업으로는 5분을 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요즘엔 주로 학습내용과 연계되는 재미있는 사진과 영상 등 학생들의 흥미를 끌 만한 사료들을 탐구 중입니다.”

해마다 연중 10여 차례 공개수업에 나서는 윤종배 수석교사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수업은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한다. 다만 혼자가 아닌, 서로 수업을 공유하다 보면 더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란다. 10여 년 전부터 “누군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끝내 하려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역사수업 공유에 일찌감치 팔을 걷어붙인 이 영역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윤 수석교사는 지금까지 <역사수업의 길을 묻다>(2018), <나의 역사 수업>(2008), <5교시 국사시간>(2005), <놀면서 배우는 신나는 국사시간>(2003) 등 역사수업과 관련한 여러 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2



교육통계로 보는 우리 교육의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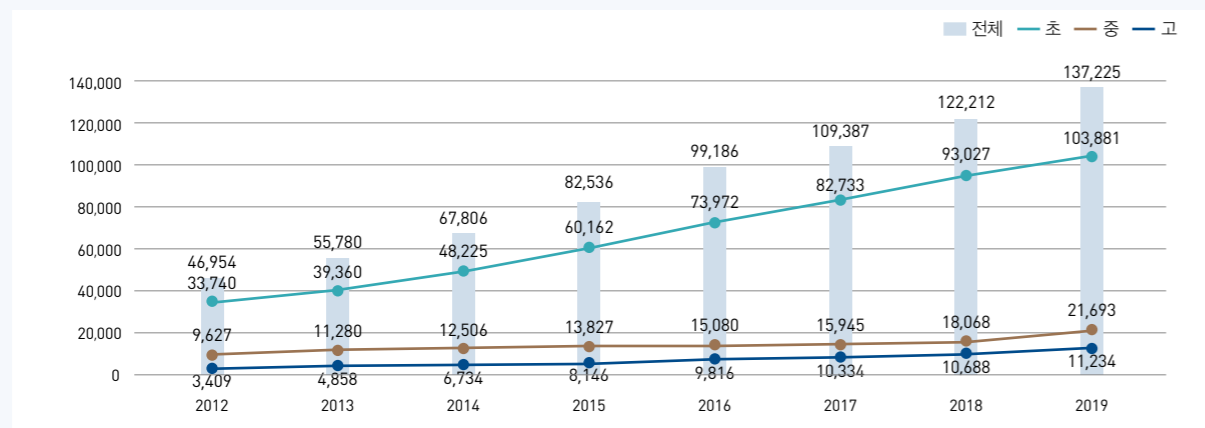
-다문화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

10년간 거주 외국인 2.6배 증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globalization)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하나가 된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과 집단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결과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의존하며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Giddens, 2009). 세계화의 기원을 언제부터라고 보아야 할지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최근 ICT 기술 발전이나 초국적 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 속도가 예상치 못했던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후 세계화에 따른 변화에 꾸준히 대처하고 있을 만큼 세계화는 구체적이고 공인(公認)된 인류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한, 1995).

세계화 현상이 초래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정보, 재화, 자원 등이 과거보다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특히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구성원이 공존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출현시켰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186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2.6배 증가했다. 이러한 규모는 전라북도 전체인구보다 많고 충청남도 인구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다(시사저널, 2019). 이렇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지난 8월 30일에 발표된 '2019년 교육 기본통계'에 나타난 다문화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를 통해 우리 교육 환경의 변화를 논의하려 한다.

[그림1]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변화 (2012~2019)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외국인 다문화 학생 비중 5.6% → 14.9%로 증가
 전체 유학생 중 1위 중국(44.4%), 2위 베트남(23.4%) 차지
 박사과정, '베트남-공학계열', '중국-인문사회계열'에 집중

다문화 학생 수 초등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년 (각종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모두 137,225명으로, 전년도보다 15,013명(12.3%)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의 2.5%에 해당하며 전년도(2.2%)와 비교했을 때 0.3%p 증가했다. [그림1]이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 학생의 증가 속도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율은 다소 떨어진다.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의 경우 전년 대비 10,854명 증가하여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4%에서 3.8%로 0.4%p 증가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전년 대비 546명 증가하여 전체 고등학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표1] 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와 비율 (2012~2019)

연도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다문화 학생 %	국제결혼 (국내출생)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 수	%	학생 수	%	학생 수	%
2012	6,730,467	46,954	0.7	40,040	85.3	4,288	9.1	2,626	5.6
2013	6,489,349	55,780	0.9	45,814	82.1	4,922	8.8	5,044	9.0
2014	6,294,148	67,806	1.1	57,498	84.8	5,602	8.3	4,706	6.9
2015	6,097,297	82,536	1.4	68,099	82.5	6,261	7.6	8,176	9.9
2016	5,890,949	99,186	1.7	79,134	79.8	7,418	7.5	12,634	12.7
2017	5,733,132	109,387	1.9	89,314	81.6	7,792	7.1	12,281	11.2
2018	5,592,792	122,212	2.2	98,263	80.4	8,320	6.8	15,629	12.8
2019	5,461,614	137,225	2.5	108,069	78.8	8,697	6.3	20,459	14.9

부모의 출신 국적으로 구분해 보면 중국인이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한국계 중국인(13,265명, 전체의 9.7%)을 제외하면 베트남 출신 부모가 30.6%(41,961명)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네 나라 출신의 부모가 전체의 80.6%를 차지할 정도로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 국가는 특정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 순수 외국인 다문화 학생↑

처음 다문화 학생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2년과 비교해 최근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국제결혼을 통해 발생한 다문화 학생의 수가 비율적으로 감소한 반면, 순수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표1]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2012년 다문화 학생의 유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국제결혼 후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입학하는 경우였다. 2019년에도 이러한 유형의 학생이 전체 다문화 학생의 78.8%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2012년과 비교하면 6%p 이상 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비율 역시 9.1%에서 6.3%로 감소했다. 그에 비교해 외국인 가정 출신의 다문화 학생 비중은 5.6%에서 14.9%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함의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형성이 우리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은 상당히 둔화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유학생 급증, 중국-베트남 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리 교육 현상이 세계화에 영향받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또 하나의 중요 집단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인구 절벽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들이 정원 충원과 재정 마련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기대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이에 공감한 교육부 역시 ‘Study Korea 2020 Project’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도우려 한 바 있다(교육부, 2014). 특히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수’는 매년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발표하는 교육경쟁력 순위 계산에 사용되는 정량지표로서의 중요성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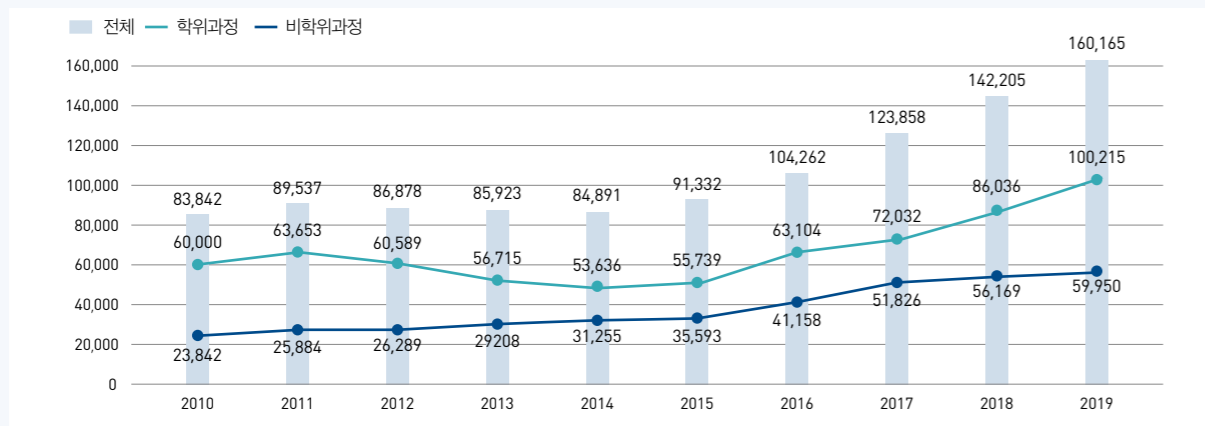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하여 2019년 상반기 현재 16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2010년대 중반에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몇 년간 감소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학위과정에만 1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현재 전체 유학생 집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인 유학생은 2010년 59,490명에서 2019년 71,067명으로 큰 규모로

증가했으나, 전체 유학생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0%에서 44.4%로 크게 감소했다(국가별로 집계된 수치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되어 있음).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1,919명(2.3%)에서 37,426명(23.4%) 급증하였는데, 이들 두 나라는 유학생 규모로 봤을 때 1위와 2위에 해당한다. 중국 학생들의 비중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2019년 기준 91.0%), 이러한 경향은 2010년(91.2%)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

박사과정 베트남 유학생, 공학·자연계열(88%)에 집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별로 유학의 목적 또는 전공하려는 분야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표2]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박사과정 유학생 전공 분포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의 경우 공학계열에 약 60%, 자연계열에 20~30% 정도의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 베트남 학생들과는 차별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에 40~50% 정도 집중되어 있으며 그러한 비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그림2] 고등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2010~2019)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세계화 현상 속에서 교육이 특정 장소나 연령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양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베트남 출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공학 및 자연계열에 집중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경향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예체능 계열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문사회 계열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전공하는 분야가 되었다.

다양성 염두에 둔 교육체계 마련 시급

교육 현장에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서 당연시됐던 것들에 대한 재고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에서 제외된 ‘단일민족’의 개념을 들 수 있다(매일신문, 2019). 과거에는 ‘차마’ 혹은

‘감히’ 의심할 수 없었던 우리 문화의 내재적 가치까지도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그 타당성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교육이 특정 장소나 연령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양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신속한 대응과 장기적인 관점의 수립이 동시에 요구된다. ②

참고문헌

Giddens, Anthony. 2009. Sociology (6th edition), Polity. UK: Cambridge.
 교육부. 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보도자료] 교육개발협력팀 2014-03-06.
 김성한. 1995. "세계화, 분권화, 지방화" <계간 사상> 1995년 봄호, pp.81-110. 사회과학원.
 매일신문. 2019. "[배상식의 여럿이 하나] '민족'이 뭔가요?" 배상식. 2019.09.09. <https://news.imaeil.com/Satirical/2019090909162342956>
 시사저널. 2019.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글로벌 코리아' 안성모 기자. 2019.09.25.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784>

[표2] 베트남과 중국 박사과정 유학생의 전공별 분포 변화 (2010~2019)

년도	베트남						중국						
	인문사회 (%)	공학 (%)	자연 (%)	의학 (%)	예체능 (%)	합계 (%)	인문사회 (%)	공학 (%)	자연 (%)	의학 (%)	예체능 (%)	합계 (%)	
2010	27 (6.4)	285 (67.4)	91 (21.5)	18 (4.3)	2 (0.5)	423 (100)	2010	730 (44.7)	422 (25.9)	283 (17.3)	108 (6.6)	89 (5.5)	1,632 (100)
2011	41 (8.1)	321 (63.3)	130 (25.6)	15 (3.0)	0 (0.0)	507 (100)	2011	846 (45.8)	477 (25.8)	320 (17.3)	99 (5.4)	106 (5.7)	1,848 (100)
2012	36 (7.3)	298 (60.7)	134 (27.3)	22 (4.5)	1 (0.2)	491 (100)	2012	896 (48.0)	439 (23.5)	310 (16.6)	100 (5.4)	122 (6.5)	1,867 (100)
2013	35 (6.0)	359 (61.3)	173 (29.5)	18 (3.1)	1 (0.2)	586 (100)	2013	903 (47.4)	436 (22.9)	319 (16.7)	108 (5.7)	140 (7.3)	1,906 (100)
2014	56 (8.5)	418 (63.4)	150 (22.8)	35 (5.3)	0 (0.0)	659 (100)	2014	974 (48.4)	437 (21.7)	281 (14.0)	133 (6.6)	188 (9.3)	2,013 (100)
2015	50 (7.0)	463 (64.9)	173 (24.3)	25 (3.5)	2 (0.3)	713 (100)	2015	1,145 (49.9)	466 (20.3)	315 (13.7)	119 (5.2)	249 (10.9)	2,294 (100)
2016	71 (8.3)	525 (61.2)	230 (26.8)	31 (3.6)	1 (0.1)	858 (100)	2016	1,253 (49.9)	488 (19.4)	308 (12.3)	126 (5.0)	337 (13.4)	2,512 (100)
2017	72 (8.2)	540 (61.2)	230 (26.1)	39 (4.4)	1 (0.1)	882 (100)	2017	1,403 (50.0)	463 (16.5)	299 (10.7)	136 (4.8)	505 (18.0)	2,806 (100)
2018	73 (7.7)	568 (59.6)	272 (28.5)	40 (4.2)	0 (0.0)	953 (100)	2018	1,747 (48.0)	498 (13.7)	325 (8.9)	151 (4.2)	915 (25.2)	3,636 (100)
2019	67 (6.9)	578 (59.3)	280 (28.7)	48 (4.9)	1 (0.1)	974 (100)	2019	2,723 (47.2)	631 (10.9)	379 (6.6)	168 (2.9)	1,864 (32.3)	5,765 (100)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제15차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 교육계 전문가들 “ICT 교육으로 사회적 통합 앞당겨”



9월 26~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 열려
13개국 교육 관계자 등 200여 명 참석
미래교육을 위한 기술활용·사회통합 등 주제발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래교육포럼이 지난 9월 26~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등 13개국 정부·교육계 관계자와 아시아개발

은행(ADB) 등 4개 국제기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래교육포럼은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아시아개발은행의 나성섭 인건사회개발 국장이 나서 ‘아·태지역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교육의 역할·사회적 통합과 인적 연계성 증진’을 주제로 강연했다. 나성섭 박사는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보편적 교육 접근성은 상승하였으나,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ICT를 활용하면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현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나 박사는 컴퓨터 보조학습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강의와 교육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ICT를 활용한 교육은 원격교육시스템과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가자들은 ICT 환경에 있어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큰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나성섭 박사는 인터넷뿐 아니라 DVD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참가자들에게 던지며 “단순히 잘살기 위해서(well-being)가 아니라 다른 문화(culture)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ICT 기술 없이 미래교육 확대는 불가능

이후 각국 민관학 대표들이 패널로 참가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과 포용 교육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미래교육을 위한 기술활용, 사회통합, 혁신과 연계성을 주제로 한 전문세션에서는 ICT 기술의 발달과 이를 활용한 교육으로 글로벌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시아교육재단의 해미쉬 커리(Hamish Curry) 국장은 ICT 기술을 활용해 국가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화상채팅 앱 ‘스카이프’를 예로 들었다. 그는 호주와 인도의 학생들이 각국에서 연극을 함께 준비하고, 서로 학교를 방문하여 합동 공연하는 공동 프로젝트가 가능케 되었다고 설명하며 ICT 기술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교사 및 학생 간 문화교류가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마하무디 야스비(Mahamudi Yusbi) 아세안재단 프로그램 매니저는 아세안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지역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ICT는 특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므로 미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해미쉬 커리 국장 역시 “ICT는 네트워크의 확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은 기술 없이 확대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기술발달 앞서 교사·학생 역량 강화 이뤄져야

이번 미래교육포럼 참가자들은 ICT 기술의 발달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술발달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등 구성원 간의 가치 공유 및 역량 강화가 밑바탕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크레이그 웨커(Craig Wacker) 조지타운대학 맥코트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교사의 사고방식이 학생의 학습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로부터의 적절한 피드백과 긍정적인

ICT는 특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므로
미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 소속감, 목적지향성 및 관련성과 같은 심리적 동기화를 통해 학습 성취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교대 백선희 교수는 교육혁신공동체(CEDI) 국제비교연구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장의 혁신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교육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학생 및 교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시사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강의 개발, APEC 학교장 국제 네트워크 조성, 세종교육포럼 연례 개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현장 우수사례 공유·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열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단위학교에서 학교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포럼에 참석한 광주 금호중앙여고 정지영 교사는 “작년에는 해외에서 열려서 참석하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다.”라며 “이런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면 세상의 변화에 대해 눈뜨게 되는 기분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잠재적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서울교대 사회교육과 홍리빈 학생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포럼의 부대행사로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제17차 국제 알코프 컨퍼런스(ALCoB: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s)와 대학생들에게 청년기업가 정신과 미래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APEC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AEEP; APEC Edutainment Exchange Program)이 함께 열렸다.
APEC 국제교육협력원 윤민홍 연구원은 “포럼을 통해 올 한해 한국을 포함한 APEC 회원국 교사, 학교 간 교육협력활동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교육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어 참가교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밝혔다. ②

1234

제15차 APEC 미래교육포럼 현장에서는 13개국 교육 관계자를 비롯해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만나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교육부+]

2020년 교육부 예산안 이야기

청년들의 출발을 든든하게 편

직업계고 경쟁력 뽐냄

내년부터는 지원 체계도 더 **총총해** 진다구!

#직업계고 활력 있게 #전문대 더 튼튼하게

- ✓ **현장실습, 취업지원 확대**
2019년 / 780억 → 2020년 / 1,351억원
- ✓ **총총한 직업계고 지원 체계 구축**

현장실습 활성화 → 취업 지원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

-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기억원, 1천명 대상**
(전문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덜었어!

교내·외 **근로장학금** 인상됐다!

*교내근로 시간당 8,350 →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0,500 → 11,150원

#맞춤형국가장학금 약 4조원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
2019년 / 3조 9,986억 → 2020년 / 4조 18억원

행복기숙사 든든하구나~

#행복기숙사지원사업 1,129억원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기숙사비 부담이 적어집니다.

- ✓ 공공·연합 기숙사 7개소 신축
- ✓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 신설로 소규모 기숙사 200호 추가 공급

청년이 더 든든해지는 2020년을 기대하세요!

제13회 청람교육포럼_사회변화와 교육 급변하는 사회, 미래교육 방향을 이야기하다



제13회 청람교육포럼은 '사회변화와 교육'을 주제로 지난 9월 18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렸다.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경제 양극화 등 현재 맞이하고 있는 사회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원대학교는 지난 9월 18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사회변화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청람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청람교육포럼은 국책연구기관과 교원양성기관이 협력해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맞춰 미래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여러 가지 교육 이슈에 대해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류희찬 한국교원대 총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며, 20세기 학교가 21세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교육과정, 교실, 교과서, 교사교육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미래 인재: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이행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와 고등교육 개혁과제 △고교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저출산 시대, 학교정책의 변화와 대응 등 4가지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대학, 유연한 학사제도·교육과정 운영 필요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미래 인재: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이행을 중심으로’ 주제에서는 백원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부연구위원이 대학의 전공과 교양과목이 학생들과 노동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 채용이 소위 스펙 중심에서 인성,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대학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 부연구위원은 “연구분석 결과 외국어, 컴퓨터 등 교양 교과와 창의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학 및 기초과학과목, 리더십 양성이나 인성 제고 목적의 소양교육이 월평균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사회계열 졸업생은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 전공 과목을 수강한 비율이 높을수록 임금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융복합 인재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의 전공 영역 간 경계를 허물고 각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과목 개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준비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등교육 개혁 논의…“공유성장형 체제 구축”

대학의 체제와 인재양성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고등교육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 대학졸업자의 낮은 취업률,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재정기반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정책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실태를 이같이 진단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대학 간, 지역사회 간 협력과 연합 등 공유성장형 체제 구축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조 연구위원은 “인구절벽 위기는 대학을 생존경쟁으로 밀어내지만,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동반 성장하도록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연령통합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직능원·KEDI·평가원·교원대 등 4개 기관 공동주최 올해로 13회째...교육정책 및 이슈 관련 소통의 장
고등교육 개혁·저출산 시대 학교정책 등 다뤄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고등교육 수학 연령은 다양해질 전망으로, 성인 학습자의 대학진입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호주처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대학교육 이수 기회가 열려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이 새로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융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산·학·연 연계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이러한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재정 지원기반 조성 과 대학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표] 고등교육의 주요 개혁 과제

- **인구구조 변화와 고등교육 체제 개혁 과제**
 - 공유성장형 체제 구축 및 재구조화: 대학·지역사회 간 다양한 보유 자원 및 역량 등의 공유 활성화
 - 고등교육 진입장벽 완화: 성인친화형 대학체제 혁신으로 연령통합적 인재 양성, 대학진입경로 확대
 - 지역 발전 허브로서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지역 우수 인재 육성, 지역사회산업과 연계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등교육 인재양성 개혁 과제**
 - 고등교육·노동시장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 전공별 인력 수급 현황과 전망의 정확성 개선, 새로운 일자리 관련 정보 지속적 보완
 - 학사구조 개편 및 산·학·연 연계 협력 활성화: 융복합 교육이 가능한 유연한 학사조직으로 전환, 현장실무경험 내실화
-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대학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강화
 - 사립대학 중심 거버넌스 개혁: 이사회·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감사기능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범교과 차원 확대해야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노은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과서본부 선임연구위원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주요 교과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를 필수로 지정하는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교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막상 각 교과에서 수업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라며 “현재는 정보·실과 등 특정 교과에만 역할이 집중돼있는데, 교과 간 역할분담과 교육과정 내에 관련 성취기준이 잘 마련된다면 범교과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통계청에서 수학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통그라미(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교사들의 원활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설계 지원을 위해 각 교과의 성취기준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자원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림1] 수학교육용 통계소프트웨어 ‘통그라미(http://tong.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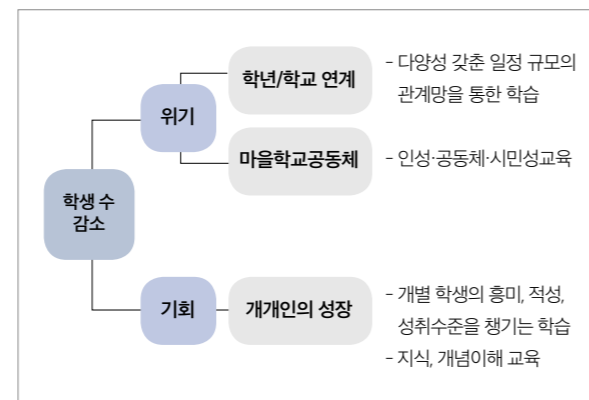
저출산 시대, 작은 교실 큰 교육공동체로

저출산 시대의 학교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한별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수 감소를 위기이자 기회라고 바라봤다.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의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는 점에서는 위기이지만,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집중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성취나 학교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회라는 것.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학생이 줄어드니 교사 정원도 줄어들고 학교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기계적 접근보다는 교육의 본질, 즉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해 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학교정책은 “작은 교실, 큰 교육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 규모는 줄어나가면서 학교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 학생 간 상호교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해외의 교육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는 통합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인성 및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우리 사회도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년제를 타파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학년 간 통합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했다.

[그림2] 저출산 시대의 학교변화와 대응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교육+

2020년 교육부 예산안 이야기

학부모·아이 마음까지 튼튼하게 편

언니 알지? 내년에 고2, 고3 모두 무상교육인게!
우리 아이 학비 부담이 1년에 160만원 줄잖아

오! 100% 아니!
응, 누리과정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걱정이 줄었어!
삼촌, 내년에 돌이유치원 가죠?

#고등학교 무상교육 6,594억원 지원

2020년 약 88만명의 고2, 고3학생이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누리과정 3조 7,846억원 지원

만 3~5세 영유아 120만명이 짙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1조 7,518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1조 9,472억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856억원
------------------------	-------------------------	------------------------

초중고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인 교육급여*가 늘어난다구요?
*초·중·고생 대상

#교육급여 1,016억원 지원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

(2019년)	(2020년)
초 203,000원	→ 206,000원
중 290,000원	→ 295,000원
고 290,000원	→ 422,200원

미세먼지, 지진, 석면
우리 아이한테 절대 안 되죠!
내년에 학교 보내기 좀 더 안심되겠어~

#안심교육환경 #시설 개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비 대폭 확충

- 국립부실학교 공기청정기 운영(5억원), 안전보강(20억원), 석면 제거(11억원)
- 국립대학 실험 및 실습 역량강화, 안전확보
 - ① 실험실습 기자재 등 확충(800억원, +315억원)
 - ②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417억원, +367억원)

마음까지 더 튼튼해지는 2020년을 기대하세요!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구축,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정부혁신 추진 2년차를 맞아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2019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9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교육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었다.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 방식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 교육 분야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다양한 배움 기회 제공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과목이나 다양한 진로·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세종시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든지 수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교사, 교실 등의 한계로 사실상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들을 개설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물리학 전공, 정치외교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물리 II’나 ‘법과 정치’ 과목을 듣고 싶어도 학교에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이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던 것. 이는 단순히 과목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학생이 관련 학과(학생부종합전형)에 진학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일반계고 학생들이 맞춤형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교육청 차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한 것이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정치외교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캠프 I¹⁾(국제정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캠프 II²⁾(활동으로 배우는 국제정치) 수강이 가능해졌다. 물리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도 캠프 I(과학과제 연구(물리), 물리실험), 캠프 II(반도체 물성과 Chip제조과정) 수강이 가능하다. 이처럼 진로전공에 맞춰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세종시 인프라 총 결합한 ‘교육 거버넌스’ 모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첫째인 2017년에는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180개 강좌에 2,66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신청자가 적어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듬해에는 중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58개 과정을 개설했으며, 올해에는 중·2·3학년과 모든 고교(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로 대상을 확대하고 458개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 경험이 중·2·3학년

으로 지속되고 고등학교 진로·전공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과목개설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학생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학교를 이동해서 수업을 들어야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BRT 도로 근처에 위치한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2019년 1학기부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III로 명명한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장소에 제한 없이 인터넷 환경이 되는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 화상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스튜디오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고, 타 시·도교육청들이 앞을 다투며 배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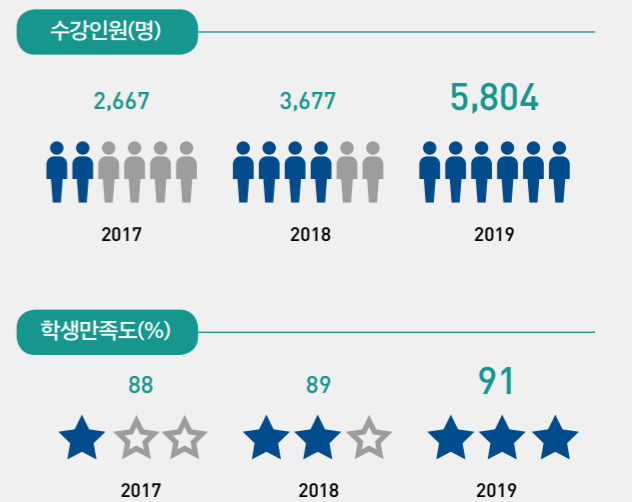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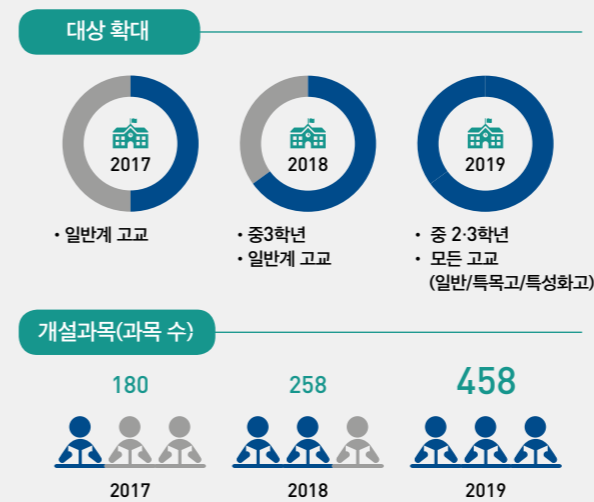
세종시교육청은 먼저,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 인근 대학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질 높은 강좌 운영과 학생 참여중심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이라는 과제를 접목시켜 세종형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좌를 확대한 점, △‘캠



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사업운영비를 학교로 교부하지 않고 직접 운영 지원한 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거점운영학교에 행정지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점,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실험실습 및 수업재료비를 지원한 점, △사회학습장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 점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고교체제 개편, 교육과정·수업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있어 선기관 구축을 위한 모델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②

1) 정규교육과정이지만 학교에 개설되지 못한 소인수, 전문(직업), 실기과목 등을 거점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2) 인문, 어문학, 사회, 경제(경영), 자연, 공학, 생활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진로·전공 탐색 도움 강좌



대학창업펀드, 창업생태계 키운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학 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를 지속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펀드가 창업기업에 조기에 활발히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2019 대학창업펀드 7개 투자조합 선정 3년간 18개 조합, 647억의 펀드 조성 대학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한다

대학 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 대학창업펀드는 ‘훌륭한 창업 아이템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창업에 도전하기 어렵다.’ ‘우수한 대학창업기업이 있어도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라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 2017년 처음 조성되어 '19년 현재 18개의 조합, 647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정부-대학 공동의 펀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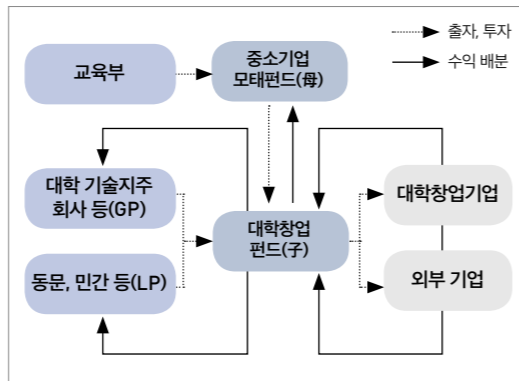
대학창업펀드조성 사업은 정부와 대학 등(대학기술지주회사, 동문, 민간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 창업기업(학생·교원 창업 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이다. 대학 내 적극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기 대학 창업 기업의 사업화 동력 확보 및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동 펀드는 정부와 대학 등이 3대 1의 매칭출자를 통해 조성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전체 펀드 조성액의 75%를 출자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은 25% 이상의 비율로 투자액을 조성한다. 조성된 펀드총액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투자액의 75% 이상(학생 창업기업은 50% 이상)은 대학 창업기업에 배정하고 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상위의 펀드(Fund of Funds)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만들고 한국벤처투자(주)가 관리 운영 중이다.

[그림1] 대학창업펀드 운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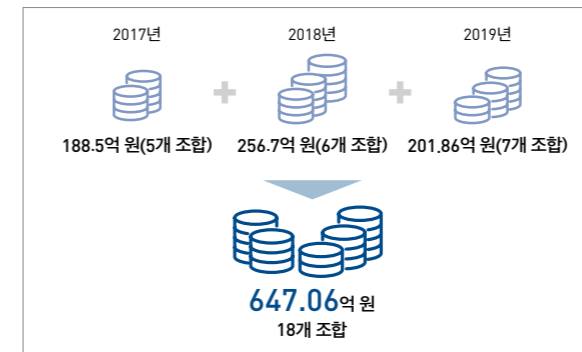


[표1] 대학창업펀드 투자비율 및 요건

유형 구분	투자 비율	투자대상 요건	
대학 창업 기업	학생	50%	학생(5년 이내 졸업자 포함), 교직원인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며 해당자의 소유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교직원	25%	
	대학기술기반 사업화기업		기술지주 자회사
외부 기업	25%	그 외 외부 기업	

2017년 최초 펀드 조성 이후 지난 3년간(17~19) 18개 펀드, 647억 원 규모로 펀드가 조성되었다. 2017년에는 정부가 120억 원을 출자하여 5개 총 188.5억 원의 펀드가 조성됐고, 2018년에는 정부가 150억 원을 출자하여 6개 총 256.7억 원의 펀드가 조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정부가 150억 원을 출자하여 7개 총 201.86억 원의 펀드가 조성되었다.

[그림2] 대학창업펀드 현황(2017~2019)



조성된 펀드는 최대 10년간 초기 대학 창업기업에 투자되는데, 2018년 8월말 기준 7개사에 165.6억 원이 투자되었다.

안정적 자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초기 대학 창업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 자원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결과, 대학창업펀드 피투자기업의 유효생존율과 유효창업율은 각각 100%, 95.1%, 고용증감율은 51.4%로 평가되어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학 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를 지속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펀드가 창업기업에 조기에 활발히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㉔

[표2] 대학창업펀드 선정 조합 현황(2017~2019) (단위: 억 원)

결성연도	조합원	계	교육부 출자액	대학 등 출자액
2017	서울대 기술지주	60.00	30.00	30.00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30.00	22.00	8.00
	전남대 기술지주	38.50	23.00	15.50
	연세대 기술지주	30.00	22.50	7.50
	고려대 기술지주	30.00	22.50	7.50
	합계	188.50	120.00	68.50
2018	한양대 기술지주	27.40	20.50	6.90
	서울대 기술지주	40.00	20.00	20.00
	미래과학기술지주	67.50	37.00	30.50
	부산대 기술지주	30.00	16.00	14.00
	포항공대 기술지주	50.00	26.50	23.50
	합계	256.70	150.00	106.70
2019	연세대 기술지주	35.00	26.25	8.75
	전남대 기술지주,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40.00	29.00	11.00
	1유형 송실대 기술지주	16.34	12.25	4.09
	2유형 총복대 기술지주, 서울과기대 기술지주, 벤처박스 주식회사	10.02	7.50	2.52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와이앤아처	50.50	37.50	13.00
	합계	201.86	150.00	51.86
	총 합계	647.06	420	227.06

※ (1유형)~'18년 대학창업펀드 미선정 조합, (2유형)~'18년 대학창업펀드 선정 조합



학생-학부모-지역주민 함께한 연세교육가족 축제



연세초등학교(교장 강해정)는 지난 9월 26일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9 별·빛 교육가족 축제'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별·빛 교육가족 축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연세초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세초 학생들은 교내에서 매주 실시한

작은 음악회와 그동안의 예술 교과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다져 각자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정성껏 준비한 무대를 뽐냈다. 연세초 앙상블 단원의 연주로 막을 올린 행사는 학생 공연, 학부모 합창단 공연, 가족 단위 공연 등 다양하고 알찬 무대로 구성됐다. 또한 밴드부, 합창부, 힙합부, 발레부, 방송댄스부 등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신나는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학생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공연으로 가족합주와 민요 부르기, 학부모 20여 명의 합창 등을 선보여 진정한 교육 가족의 화합을 보여주었다. 연세초는 앞으로도 교육 가족의 뜻을 모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아 노력할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마천초, 지리산에서 체험하는 생태교육 실시



마천초등학교(교장 서춘래)는 지난 9월 19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연계해 '지리산과 함께하는 무한상상 자연교실'을 운영했다. 마천초등학교 특색교육인 온새미로 자연 나눔과 연계해 실시하는 본 프로그램은 자연 생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지식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연 친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지리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체험함으로써 정서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백무동 가내소 자연 관찰로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고 다양한 동식물의 변화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리산에 서식하는 양서류와 파충류를 알아보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지리산의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산길을 따라 펼쳐진 가을의 모습을 보며 지난 6월에 관찰했던 모습과 비교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가을 낙엽과 도토리 등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주는 식탁도 만들어보고 도토리 머리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손가락 인형도 만들어보는 즐거운 경험도 가졌다. 본 활동에 참여한 하정사랑 학생(5학년)은 "6월에 왔을 때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지금은 가을이라 잎의 색깔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도토리도 주워봤다. 겨울에도 온다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금정고 SW동아리, 공기청정기 제작해 지역사회 기부



일반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익힌 기술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나눠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금정고등학교(교장 박정수)는 최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공기청정기를 지역 내 저소득 노인과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증하는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학교의 소프트웨어(SW)동아리는 교내 메이커교육 활동

으로 공기청정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배웠다.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3D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 외관도 제작했다. SW동아리 학생들은 제작원가 2~3만 원 상당의 재료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학교 교직원들에게 7만 원씩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공기청정기를 추가 제작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증하는 학생 창업 프로젝트 및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9월 23일과 26일 명장1동 주민센터와 동래교육지원청을 각각 방문해 공기청정기를 10대씩 기증했다. 행사에 참여한 배수찬 학생은 "소프트웨어 및 메이커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11월에는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필터 규격에 맞는 다른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특별실 등 공기청정기가 없는 교육공간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상이룸교육'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28일 상상이룸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공주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초·중·고교 학생 가족 84팀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상상이룸교육 축제를 개최했다. '상상이룸교육'은 메이커교육의 순우리말 표현으로 일반인에게 더욱 쉽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것이다. 이날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상하고 체육관에 마련된 장터마당을 통해 필요한 재료를 직접 구입해 만들어보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가졌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14개 시·군 상상이룸공작소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예산교육지원청 꿈지락상상이룸공작소의 경우 예산중앙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이용해 목공, 3D프린팅, 언플러그드 활동 전시실 등을 만들어 학생들의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남도교육청은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해 지식습득,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닌 상상이룸교육을 통해 정해진 답이 아닌 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상상하며, 협업으로 창작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뿌듯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도내 한 초등학교 프로젝트 팀 학생들이 인터뷰를 위해 교육감실을 찾았다.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6학년 학생 5명은 지난 9월 25일 장석웅 전남교육감을 만나 ‘아이들의 꿈과 도전, 미래 희망’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꿈꾸는 6학년’이라는 팀명으로 프로젝트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환, 신서현, 김현서, 나예준, 김민재 학생은 이날 장 교육감을 만나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스스로없이 물어봤다. 학생들은 ‘교육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교사로 퇴직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 장 교육감도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장 교육감은 “오늘 인터뷰는 지금껏 했던 그 어떤 인터뷰보다 특별하고 기분 좋은 인터뷰”라며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니 힘이 난다.”라고 답했다.

목포부설초 ‘꿈꾸는 6학년’ 팀은 지난 5월부터 휴일과 여름방학을 이용해 각계의 주요 인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지원 국회의원, 임사랑 목포 MBC 아나운서,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을 인터뷰했다. 또, 정재승 KAIST 교수와 설민석 단꿈교육 대표이사 강의를 청취한 뒤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능주고 학생들이, 교내 버스킹에 도전하다



능주고등학교(교장 권정순) 학생들이 지난 9월 10일 교내에서 버스킹을 열었다.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버스킹은 학생들이 주체가 돼 추진됐다. 11명의 학생위원들이 행사 기획부터 홍보, 준비, 진행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직접 맡아 운영했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버스킹을 생중계하면서 현장의 학생들뿐 아니라 보다 많은 학생들과 행사를 공유했다.

이번 버스킹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버스킹이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 형식을 빌려 진행됐다. 사전에 SNS를 통해 받은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기도 했다. 풋풋한 청소년의 사랑 이야기, 기숙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경험, 기억에 남는 재미난 선생님 일화 등이 차례로 소개됐다. 학생들은 이러한 버스킹을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 학생위원으로 활약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버스킹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오늘 큰 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능주고는 앞으로도 ‘안녕하세요나’ ‘주먹이 운다’와 같은 TV프로그램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⑦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교육부+

2020년 교육부 예산안 이야기

평생 배움으로 든든하게 편



케이무크로 집에서 편하게 양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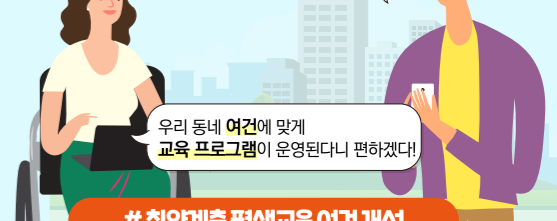
인문교양부터 4차산업까지 배움에는 끝이 없네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135억원

AI 강좌를 포함, 다양한 분야의 *케이무크(K-MOOC) 140개 신규 강좌로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평생교육! 알른 알아봐야겠어



우리 동네 여건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니 편하겠대!

취약계층 평생교육 여건 개선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46억원 지원 (▲11억원)
- ☑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 15억원 신설

평생교육 배우러, 학습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까요!

평생교육바우처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요~



#평생교육바우처* 8,000명으로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평생학습 기회가 더 커집니다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평생교육으로 더 든든해지는 2020년을 기대해주세요!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③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학교-지역사회 상생 이끄는 학교복합화시설

① 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② 늘어나는 폐교, 마을 속으로 ③ 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④ 지방교육 재정의 해안 ⑤ 교원수급은 이상 없나?



화성시 동탄중앙초 부지에 건립된 학교복합화시설 '동탄중앙이음터'

학교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교가 오로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수 감소로 남는 교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부지 내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등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민들에게 활짝 문을 연 학교는 소통의 장이 되면서 지역에 활기를 북돋아 준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은 특히 학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구도심 지역이나 학교 통폐합이 논의되는 농어촌 지역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 교내 여유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발길이 잦아진다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돕는 길이 된다.

학교복합화시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과도 맞물려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생활 SOC 확충에 총 30조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도 좋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활용 가능한 공간이 늘고 있어 복합화 시설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이처럼 학교가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국내 최초 학교복합화시설,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은 학교와 주민편익시설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학교복합화시설로,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됐다. 지난 2002년 개관한 이곳은 학교와 구청, 교육청의 합의로 총 사업비 224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금호초 부지와 학교시설 건축비를 지원했고, 성동구청이 투자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탄생했다. 연면적 20,918㎡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에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실, 피아노실,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섰다. 현재 시설운영관리는 성동구청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다.

금호초 학생들은 체육교과 시간에 실내체육관에서 수업을 듣는다. 학교 교사동과 실내체육관이 연결되는 출입구가 설치돼 있어 외부이동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생존수영 수업이 이뤄진다. 수영장을 찾아 멀리 이동할 필요 없어 편리하다.

학생-주민 간 동선 분리해 설계

수업시간 이외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된다. 수영, 에어로빅, 필라테스 등의 스포츠강좌와 피아노, 외국어, 논술 NIE 등 문화강좌를 저렴한 가격에 수강할 수 있다. 영유아기부터 학생, 직장인, 주부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학교와 복합화시설, 공영주차

장 출입구를 분리 설치해 학생과 이용주민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오창현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센터장은 “월평균 3천 명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한다. 거주지 근처이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비스와 가격 면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건물이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성동구청 도시관리공단에서 매년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을 찾아 학교복합화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학교-마을-주민 잇는 '이음터' 조성

학교복합화시설이 가장 활발하게 조성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다. 화성시는 '이음터'라는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 학교와 마을, 주민을 잇는 공간이라는 뜻의 이음터는 신도시 건설로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학교 안에 하나의 복합건물로 들여놓아 지역공동체의 중심공간 역할을 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화성시는 현재 세 곳의 이음터를 운영 중이다.



동탄중앙이음터 ICT실에서는 교내에서 하기 힘든 메이커 교육이 지원된다.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내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생존수영 수업

가장 먼저 건립된 곳은 동탄중앙이음터로 동탄중앙초등학교 부지에 화성시가 2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었다. 연면적 10,392.92㎡에 지하 2층~지상 5층 건물에는 시립어린이집, 마을카페, GX실, 공동육아실, 도서관, ICT실, 요리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특히 ICT실은 동탄중앙이음터의 특화시설로, 교내에서 하기 힘든 메이커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ICT 교육을 진행한다. 3D프린터와 VR 기기, 드론 등 다양한 장비가 갖춰져 있다.

올해만 두 곳 개관...2021년까지 총 7개소

동탄중앙이음터에 이어 올해에는 두 개 이음터가 연이어 개관했다. 다원중학교 부지에 지어진 다원이음터와 송린중학교 부지의 송린이음터다. 두 곳은 각각 지난 5월과 8월에 문을 열었다.

다원이음터는 시민들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기는 복합예술공간이라는 콘셉트를 특징으로 한다. 매주 토요일 3층 소극장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를 보러올 수 있는 ‘난장판 마을극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4층 미디어창작소에서는 1인 미디어실과 사진스튜디오를 이용한 미디어 교육이 이뤄진다. ‘마을동아리’라는 주민모임 운영을 통해 이음터 공간 이용과 교육 활동이 지원되고, 주민 간 활발한 교류도 이끌고 있다.

가장 최근 개관한 송린이음터는 3층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 특징적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해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끼리 서로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서비스다. 송린이음터 내부에는 205㎡ 규모로 자유활동실, 블록방, 교육실, 장난감 대여실, 수유실 등이 구성돼 있다.

이음터는 오는 2021년까지 4개소가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현재 건립이 확정된 부지는 동탄2신도시 지역이다. 이음터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교육,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도시 설계 단계부터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12 광명시는 광명동초와 경기항공고의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와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9월 20일 열린 간담회에서 광명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 논의했다.



아파트 단지 입주가 이루어지는 신규 택지 내 학교 부지에 이음터를 우선 건립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가속도 붙는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사업

이처럼 신도시에서는 도시 설계 단계부터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개발이 마무리된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배곧누리초등학교 내에도 학교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가 들어섰다. 지난 9월 개관한 배곧너나들이의 내부에는 북카페, 도서관, 건강검진실, 육아카페, 동아리실 등이 설치돼 학생들에게는 교육공간을, 주민들에게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광명시에서도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정부의 생활 SOC 확충 계획에 따라 광명동초등학교와 경기항공고등학교의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9월 20일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학생 등 600여 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광명시의 학교시설복합화 계획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학교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변의 주택 밀집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에는 대공원장, 시청각실, 무용실 등이 들어서는 복합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시설복합화는 이제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자 마을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 방식으로 바꾼다는 의미”라고 화답했다. 최근 광명교육지원청, 광명동초등학교와 함께 MOU를 체결한 광명시는 오는 2021년까지 학교복합화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12

[표1] 화성시 이음터 현황

	동탄중앙이음터	다원이음터	송린이음터
개관일	2016. 9.	2019. 5.	2019. 8.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15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54-14	경기 화성시 수노을2로 150
사업비	214억 원	230억 원	250억 원
건물 규모	연면적 10,392.92㎡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1,864.69㎡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1,869.55㎡ 지하 1층~지상 5층
시설 현황	1F 시립어린이집, 마을카페 2F GX룸, 동아리실, 공동육아실 3F 어린이열람실 4F 일반청소년열람실 5F ICT 특화 프로그램실, 요리스튜디오	1F 어린이도서관, 요리스튜디오, 아이자람퓨터(시간제 보육 및 육아프로그램 운영) 2F 도서관 및 열람실 3F GX룸, 문화교실 (동아리실), 소극장 4F 실내체육관, 대강당, 미디어실	1F 시립어린이집, 유아-어린이자료실 2F 시청각실, 종합자료실 3F 실내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4F 동아리실 5F GX룸, 소회의실
특징 (특화 시설)	ICT 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이랩(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연극, 영화, 미디어 등 문화예술 특화시설로 관련 동아리 및 공연 프로그램 활성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육아정보 공유 가능

[표2] 현재 개설 중인 이음터

- 동탄목동이음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0길 6 동탄목동초등학교

→ 준공(예정)일 **2019. 10.**
- 동탄2 중14 동탄서연이음터 (미정)**
 화성시 동탄대로4길 40 서연중학교

→ **2020. 8.**
- 동탄2 초1이음터 (미정)**
 화성시 영현동 37-14

→ **2021. 8.**
- 동탄2 초28이음터 (미정)**
 화성시 장지동 910-55

→ **2021. 8.**

※ 현재 이음터를 개설 중에 있으나 명칭은 미정 상태임.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꿈이 없는 영길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종종 '장래 희망이 뭐니?'라고 물으며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 분명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꿈을 잃고 의욕도 함께 잃은 아이들이 늘어난다. 아이들이 꿈을 되찾게 하려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문제

영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날 담임선생님이 전화하자 엄마가 받아서 “아이가 아파요.”라고 했고, 다음날엔 “저하고 싸워서 안 가니 며칠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고, 그 후엔 울먹이며 “아무리 빌어도 학교에 안 간다네요.”라고 했다. 급기야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러 갔지만 영길은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친구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 중국에서 근무하던 아빠가 급히 귀국해서 설득한 끝에 거의 한 달 만에 학교에 왔지만, 공부를 접은 게 뚜렷해 보였다.

진단

상담실에 온 영길은 화난 것도 우울한 것도 아닌, 무기력한 태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상담 선생님은 영길을 데리고 학교 뜰을 산책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시간이 꽤 지난 후 영길로부터 어렵게 알아낸 이야기는 이랬다.

영길은 중학교 때 공부도, 농구도 잘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내던 아이였다. 문제는 특목고 입시에서 떨어지고 일반고로 진학했을 때부터였다.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초조한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특목고에 간 친구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다른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도 훌륭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공부했지만, 성적은 변화가 없었다.

그 무렵 영길은 게임에 빠졌다. 여자 친구도 생겼다. 그러자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영길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꿈도 희망도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학원을 끊고 몇 달 동안 집에서 목숨 걸고 밀린 공부를 하자는 특별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게 함정이 될 줄이야! 학원만 끊었을 뿐, 공부는 안하고 게임에 중독되었다. 여자 친구가 문자로 ‘나는 네가 너무 부담돼.’라며 끝내자던 날,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인터넷 강의 버튼을 눌렀지만, 기간만료로 강의실에 입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 내가 왜 이러지? 난 끝났어.’ 하면서 평평 울었다.

영길은 우울증이라고 보기에는 활동이 많고, 소진(burn-out)이라고 보기에는 덜 지쳤기 때문에 무기력증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1970년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탈출구 없는 우리에 개를 넣고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도망치려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자 체념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탈출구를 열어둬도 우리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발견했다. 영길도 나름 노력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자, 포기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학습된 무기력에 걸린 것이다.

지도

상담 선생님은 꿈을 버린 영길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맨 먼저 ‘꿈도 희망도 없다고 계속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거니? 아니면 내가 도와줄 테니 벗어날 거니?’ 하고 물어서 ‘나오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해보겠어요.’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다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니?’ 하고 물었더니 ‘여자 친구와 사귀면서 낯가림이 심한 게 문제였어요. 사람을 만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걸 없애고 싶어요.’라는 다소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 그러나 영길에겐 이게 탈출하는 첫걸음인가 보다. 인정해 주는 게 좋다. 그러자 엄마가 저녁 시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셨다. 영길은 낮엔 학교, 저녁엔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더니 점차 또래 아르바이트생들과 친해졌고, 그 결과 무기력한 기분이 많이 사라졌다.

상담 선생님은 이만하면 위밍업이 됐다고 생각하고 영길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했다. “영길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앞질러 지나가고 너만 뒤쳐진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며 패배감을 맛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겠니? 그 시간에 네게 맞는 꿈을 다시 찾아서 노력하는 게 좋을 거야. 작은 꿈도 괜찮아. 유명배우도 요리사가 되었고, 권투챔피언도 비둘기 조련사가 되었고, 그룹 부회장님도 웨이터가 되었는데. 큰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길아. 큰 꿈은 이루기 어렵고, 작은 꿈은 꾸기 싫고, 적절한 꿈은 보이지 않아서 꿈을 잠시 잃었구나. 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여러 번 꿈을 고쳐 쓰며 살듯, 너도 너만의 꿈을 찾아보렴. ⑤



관리자로부터의 부당한 지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학교에 이미 전자결재가 안착이 됐으나 학교 관리자로부터 수시로 사전에 대면, 구두결재를 요구받아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미운털이 박혔는지, 다른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일을 저한테 몰아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다른 반감이 없이 일을 했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간혹 사적인 업무지시까지 합니다. 교사로서 학교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자결재가 없던 예전 세대와 현재의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세대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을 먼저 베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교원의 고충심사청구권

먼저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권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립대학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신분의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관할청(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구제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봉획정, 휴가, 복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행정청과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시·도교육청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비리, 부조리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사적인 업무지시 같은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교원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 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등

사회생활 문제, 이해와 관용 먼저 선행되어야

위의 두 가지 방법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하자면, 결국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관리자로서, 교원으로서의 모든 문제를 행정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어쩌면 세대갈등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없던 예전 세대와 현재의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세대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파프리우스 시르스는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그 사람의 벗이 되는 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을 먼저 베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㉞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_ 디지털 세상,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기반 환경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다.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도 미디어에 대한 경험의 차이, 정보 접근 능력의 차이가 크다. 아이들 사이에서 미디어 격차를 줄여서 디지털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다. 모니터단 신소라

[교육포커스_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늘어나는 폐교, 마을 속으로]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학생들과 이로 인해 문을 닫는 교정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재활용이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고, 이러한 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모니터단 길경준

[교사상담실_ 친구 같은 선생님 vs 만만한 선생님] 내가 교단에 서게 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 글을 읽으며 '3월에는 웃어주면 안 된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들의 감정을 수용 또는 공감해 주어야 할 것이고, 다 함께 학급의 규칙을 정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교사가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것이다. 모니터단 배지은

ENENT

10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국립대의 역할은 ()이다'의
빈칸을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다음 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서유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김도영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중앙로
이준길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박형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교육분야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규제존치 필요성, 정부가 입증합니다!

고수학업 방법의 다양화-자유화
대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가 확대됩니다.

기존	개선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	학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 확대 설정 방안 마련

*일반대학에 원격수업용 공간, 자원 100% 배정하기

대학 등의 해외캠퍼스 신설에 제고
대학 등의 해외캠퍼스를 허용하고 학과와 정원은 국내와 별도로 운영 가능합니다.

기존	개선
해외 캠퍼스 근거 규정 없음	해외 캠퍼스 근거 규정 마련 (해외 캠퍼스 학과 개설-운영 총괄 지원)

*그동안 2019년, 2020년 2건 승인 (2017년 1건)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우수 인력 양성기회
산업체의 우수 인력에게 대학 교직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개선
민정 산업체 경력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관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이 대학교원 자격인정 기준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승인 후 인사혁신처 장관 승인 (2019년 2건, 2020년 1건)

미래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국립대학 처·실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됩니다.

기존	개선
학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범위를 3~5개로 제한	국립대학 처·실이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강화도록 위임

*국립대학교장, 정부 10명 이내 위임 (2019년 1건)

학교운영체제 자율성 제고
대학 교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선
분리된 대학교지 간 거리가 2km를 초과하는 경우, 각 교지별로 학생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추어야 함	교지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분리교지를 단일교지로 간주 (예외사항 제외) 가능 (2019년 2건, 2020년 1건)

*대학 설립 근거규정, 제1회 개정 (2019년)

상업주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개선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의 경우에도 사선상사일 승인 대상	다 전문대학원 신설에 준하여 석사과정 설치 신청 시 사선상의 대상으로 완화

*2019년 10월 15일 시행 (2019년 1건, 2020년 1건) / 2020년 10월 15일 시행 (2020년 1건)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재산은 처분하여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선
대체 취득 없는 처분 불가	처분대상을 교외회계로 진출하는 조건에 한정하여 별도의 대체취득이 없어도 처분 허가

*일반대학(일반) 기준 (2019년 1건, 2020년 1건)

학교 주변 경제 활성화
학교 주변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개선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시설 설치 제한	유해인식도 조사 및 연계권역의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제 완화 추진

*교육부 장관 승인 후 인·재·고(2019년 1건, 2020년 1건)

2019년
상반기
규제개선
38건

교육 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